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UCI]I804:24011-200000266666

2018년도 2월
석사학위논문

신안 김환기가옥의 건축특징과 변화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최 규 웅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신안 김환기가옥의 건축특징과 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and Alterations of Sinan Kim Hwan-gi's House

2018年 2月

조선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최 규 웅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신안 김환기가옥의 건축특징과 변화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신 웅 주

이 논문을 공학석사학위 논문으로 신청함.

2017年 10月

조선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최 규 웅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최 규 웅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 인 호 印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경 원 印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신 웅 주 印

2017年 12月

조선대학교 대학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목 차

ABSTRACT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2

2. 이론고찰
2.1 선행연구고찰 ····· 3
2.2 신안지역 민가 고찰 ····· 8
2.2.1 신안지역의 거주 역사 ····· 8
2.2.2 신안지역의 민가 고찰 ····· 8

3. 김환기화백의 생애와 작품활동
3.1 유년시대 ····· 11
3.2 일본유학시대 ····· 11
3.3 서울시대 ····· 13
3.4 파리시대 ····· 14
3.5 서울시대 ····· 14
3.6 뉴욕시대 ····· 14

4. 김환기가옥의 원형복원을 위한 분석
4.1 김환기가옥의 경관 ····· 18
4.1.1 주변현황 ····· 18
4.1.2 경관분석 ····· 19
4.1.3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검토 ····· 21
4.2 김환기가옥의 현황 ····· 25
4.2.1 배치현황 ····· 25
4.2.2 가옥현황 ····· 28
4.3 김환기가옥의 고찰 ····· 38
4.3.1 문헌고찰 ····· 38
4.3.2 지적도 고찰 ····· 39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3.3 위성사진 고찰 ····· 41
4.4 김환기가옥 복원을 위한 분석 ····· 43
4.4.1 김환기가옥의 건축시기 분석 ····· 43
4.4.2 김환기가옥의 영역 및 배치 추정 ····· 45
4.4.3 김환기가옥을 구성했던 건축물 추정 ····· 46

5. 결론 ····· 48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목 차

표 1. 도서지역 민가의 선행연구 ····· 3
표 2. 김환기 가옥의 영역과 현재의 지번 ····· 4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 림 목 차

그림 1. 신안지역 민가의 평면 유형 ····· 10
그림 2. 1935년 9월 6일 김환기 이과전 입선에 관한 동아일보기사 ····· 12
그림 3. 1948년 10월 10일 김향안에 관한 경향신문 기사 ····· 13
그림 4. 1963년 5월 25일 상파울루 비엔날레 출품에 관한 경향신문 기사 ····· 15
그림 5. 1970년 6월 9일 김환기화백의 한국미술대전 대상 수상에 관한 동아일보 기사 · 16
그림 6. 김환기화백 연보 ····· 17
그림 7.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주변 현황 ····· 18
그림 8. 김환기가옥 주변 현황 ····· 19
그림 9. 김환기 가옥 주변 경관 ····· 20
그림 10. 김환기 가옥 주변 경관 ····· 20
그림 11. 김환기 가옥 전경 ····· 20
그림 12. 김환기가옥 및 주변의 토지소유 현황 ····· 21
그림 13. 2007년 문화재청 고시 당시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필지 ····· 22
그림 14. 2007년 고시 문화재(지정·보호)구역 설정 ····· 22
그림 15. 2009년 문화재(지정·보호)구역 조정에 따른 문화재구역 필지 ····· 23
그림 16. 2009년 문화재(지정·보호)구역 조정에 따른 문화재구역 변경 ····· 23
그림 17. 2010년 문화재청 고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 24
그림 18. 현상변경 허용기준 ····· 24
그림 19. 김환기가옥의 배치 현황 ····· 25
그림 20. 김환기가옥 전경 ····· 26
그림 21. 김환기가옥 전경 ····· 26
그림 22. 김환기가옥 화실 전경 ····· 27
그림 23. 김환기가옥 앞 화장실 전경 ····· 27
그림 24. 김환기가옥 평면도 ····· 29
그림 25. 가구구조 ····· 29
그림 26. 김환기가옥 단면도 ····· 30
그림 27. 김환기가옥 단면도 ····· 30
그림 28. 김환기가옥 정면도 ····· 30
그림 29. 김환기가옥 우측면도 ····· 31
그림 30. 보존관리 현황 ····· 31
그림 31. 김환기가옥 화실 평면도 ····· 32
그림 32. 화실 전경 ····· 33
그림 33. 화실 옆 부속창고 ····· 3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34. 화실의 덧댄 함석 처마 ····· 34
그림 35. 원형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배면 벽체 ····· 34
그림 36. 화실 창고 내부 ····· 35
그림 37. 정면 마루 ····· 35
그림 38. 배면 벽체 및 처마 ····· 36
그림 39. 파손된 지붕부 ····· 36
그림 40. 파손된 지붕부 ····· 37
그림 41. 내부 가구 구조 ····· 37
그림 42. 김암기 소장 김환기화백 수채화 ····· 38
그림 43. 김환기가옥의 현재 모습 ····· 38
그림 44. 1917년 국가기록원 소장 지적도의 김환기가옥 추정 필지 ····· 39
그림 45. 1917년 지적도 ····· 40
그림 46. 1917년 국가기록원 소장 지적도 ····· 40
그림 47. 1954년 해방이후 항공사진 DB ····· 41
그림 48. 1972년 4개지역(목포) 7코스 20영상 ····· 41
그림 49. 1980년 서남해지구 7코스 23영상 ····· 41
그림 50. 1985년 남해지구 26코스 7영상 ····· 41
그림 51. 전라남북도서B 항공사진 1986 38코스 23 ····· 42
그림 52. 1994년 목포지구 18코스 13영상 ····· 42
그림 53. 1997년 눌옥지구 23코스 ····· 42
그림 54. 2003년 호남1지구 25코스 14영상 ····· 42
그림 55. 김환기가옥의 건축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 ····· 43
그림 56. 1917년 폐쇄지적도 상의 소유자 성씨 ····· 44
그림 57. 김환기가옥의 상량문 ····· 44
그림 58. 김환기가옥의 영역 및 배치 추정 자료 ····· 45
그림 59. 항공사진을 통해 확인한 김환기가옥의 영역과 시기별 배치 ····· 46
그림 60. 김환기가옥을 구성했던 건축물 추정 ····· 46
그림 61. 최초 ····· 47
그림 62. 1927년~1931년 ····· 47
그림 63. 1997년 ····· 47
그림 64. 1980년대 중반 ····· 47
그림 65. 2003년 ····· 47
그림 66. 2015년 ····· 47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and Alterations of Sinan Kim Hwan-gi's House

Choi Gyu-woong

Advisor : Prof, Shin Woong-ju, Ph.d.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Painter Suhwa Kim Hwan-gi established his own unique world of art based on Korean-style lyricism with his sophisticated and sublimated formative language as the first generation of Korean abstract art. He made his name known not only in Korea but New York and Paris, the center of contemporary art.

Painter Suhwa Kim Hwan-gi who strived to modernize Korea's traditional beauty as one of the representative Korean artists of Western painting was born in Anjwa-myeon, Sinan-gun. The place is known as a meaningful place where he spent his childhood and youth.

It seems that the place is equipped with historical and artistic value as space where painter Kim Hwan-gi's work activity was carried out in his childhood and youth and is precious material historically and culturally, too, well revealing how traditional houses were changing along with social changes in the modern age of the early 20th century.

Here, to figure out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Sinan Kim Hwan-gi's house, this author will review related literatures on painter Kim Hwan-gi, understand history of architecture, and lay the foundations for restoring the accurate locations of buildings in different years through historical investigation.

In the process, this researcher has drawn following results:

Presently, there is almost no material left for us to examine how Kim Hwan-gi's house looked in the first place. But there is a painting that chef Kim Am-gi possesses where we can find the image of painter Kim Hwan-gi's house drawn by recalling th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memories at home in a far-off land. With that, we can see it should be the original looks of that house.

To examine the original looks of Kim Hwan-gi's house when it was built, this author studied the closure land registration map. By analyzing 29 land registration maps around Eupdong-ri of Gijwa-myeon in Muan-gun of Jeollanam-do produced in 1917 which National Archives of Korea possesses, this researcher could figure out the status of land registration around Kim Hwan-gi's house with No. 15 and 22 drawing board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considering aerial photographs after the emancipation that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possesses, this author has found that the arrangement of Kim Hwan-gi's house was changed from 1954 up to 2008. In 1954 aerophotos, we can see the main building and studio in Kim Hwan-gi's house and there was an additional structure between them.

Kim Hwan-gi's house was built before 1925. The main building presently designated as a cultural asset and also the sarangchae arranged in the east and the studio, too, were built in the similar period.

This researcher also has obtained a witness' statement that Kim Hwan-gi's house was divided from the studio with walls and the sarangchae was arranged orthogonally to Kim Hwan-gi's house in between.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수화 김환기화백은 한국 추상미술의 제1세대로서 세련되고 승화된 조형언어로 한국적 서정주의를 바탕으로 한 고유의 예술 세계를 정립하여 한국을 비롯하여 현대 미술의 중심지인 파리와 뉴욕으로까지 그 이름을 알렸다. 그는 1930년대 후반 경부터 가장 전위적인 활동의 하나였던 추상미술을 시도, 한국의 모더니즘을 리드하였으며 현대적이고 절제된 조형언어를 바탕으로 이룩한 그의 정서세계는 50년대에 이르러 산, 강, 달 등 자연을 주 소재로 더욱 밀도 높고 풍요로운 표현으로 한국적 정서를 아름답게 조형화 하였다.[1)]

그의 예술은 1956년부터 1959년까지 약 3년간의 파리 시대와 상파울로 비엔날레에서 수상한 해인 1963년부터 작고한 1974년에 이르는 뉴욕시대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는데, 파리시대와 서울시대를 포함한 1950년대까지 그의 예술은 엄격하고 절제된 조형성 속에 한국의 고유한 서정의 세계를 구현하였으며, 1960년대 후반 뉴욕시대에는 점, 선, 면 등 순수한 조형적 요소로 보다 보편적이고 내밀한 서정의 세계를 심화시켰다.[2)]

한국의 대표적인 서양화가로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재해석하는데 힘쓴 수화 김환기 화백은 신안군 안좌면에서 태어나 유년기 및 청년기를 보냈다.[3)]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신안 김환기가옥은 김환기화백의 유년기와 청년기 작품활동이 이루어졌던 공간이라는 역사적, 예술적 가치와 함께 20세기 초반 전통가옥이 근대로 들어서면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실용적으로 변용되어 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귀중한 역사문화적 자료로 판단된다.[4)]

그러나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이후에, 가옥주변의 토지 매입 및 주변정비사업을 몇 차례 추진하였으나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체계적인 보수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1) 환기미술관 연보, http://whankimuseum.org/new_html/01_whanki/index.php?checkPage=biography

2) 환기미술관 연보, http://whankimuseum.org/new_html/01_whanki/index.php?checkPage=biography

3) 최성환, 천사섬 신안 섬사람 이야기, 신안군, p.246

4) 문화재청,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1&VdkVgwKey18,02510000,36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김환기화백이 유년시설 미술활동을 하였던 신안 김환기가옥의 건축시기와 영역, 건축물의 원형 추정을 통해 정비와 복원에 필요한 결정적인 자료의 고찰과 분석을 하는 것이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김환기길 38-1 일원의 문화재지정 김환기가옥과 그 일대로 한정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문헌 및 사료조사의 경우 개항기, 일제강점기, 근대 및 현대로 범위를 설정하였고, 현황조사는 2015년~2017년으로 설정하였다. 내용적 범위로 과거의 문헌 및 기존자료를 조사 정리하여 김환기가옥의 연혁을 작성하였고, 현황조사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실측조사를 수행하였다.

문헌조사의 경우 수화 김환기화백과 관련된 문헌 조사 정리하였고, 기존 사업 및 관련 보고서 분석하였으며 김환기가옥의 역사적 배경 정리한 후 가옥의 구성 건물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고증하는 단계를 거쳤다. 현황조사의 경우 토지이용 현황, 건축물의 보존상태, 주변의 문화환경 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김환기가옥의 건축특징과 변화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 2장에서는 이론고찰을 통해 신안지역의 거주역사 및 민가를 고찰하였고, 3장에서는 김환기화백의 생애와 작품활동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4장에서는 김환기가옥의 경관분석을 위해 주변현황을 조사하여 경관을 분석하고, 문화재가치 유지를 위해 지정된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김환기가옥의 배치현황 및 가옥의 유지 및 관리현황을 파악하였다. 김환기가옥의 연혁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 지적도, 위성사진을 고찰하여 건축시기, 영역 및 배치에 관한 원형을 제시하고 복원을 위한 자료를 구축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이론고찰

2.1 선행연구고찰

선행연구의 고찰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에 등재된 관련 연구 중에서 전라남도에 소재한 대상 민가를 선정한 연구를 통해 각 연구의 진행과정을 파악하고 특징을 분석하여 본 연구의 방향 설정을 위해 참고하였다.

표 1 도서지역 민가의 선행연구

번호	제목	년도	연구자	연구대상	연구내용	비고
1	남해 도서지역 민가의 주거공간에 관한 연구	1984	김선배	전남도서 민가	민가의 배치, 평면, 규모를 분석하여 남해 도서 민가의 특징을 밝히고자 함	석사 학위
2	전남 여천지역 민가의 특성에 관한 연구	1988	조상현	여천지역 민가	가옥의 배치형태, 안채의 평면형태, 구조형태를 분석하여 유형을 분류하였고, 이를 토대로 건축특징을 밝히고자 함	석사 학위
3	서해도서민가평면형식의 지역적특성에 관한 연구	2000	박선주	서해도서 민가	서해 도서민가의 평면형태를 분석하여 유형 분포를 분석, 지역성을 파악하고 서해도서 민가의 체계를 정리함	박사 학위
4	한국 도서지방의 전통민가	2001	김지민	서남해 도서지역	도서별 환경,토지,기후,생활의 특수성을 통해 지역별 민가건축의 특징을 밝히고자 함	학회
4	전남지방 민가의 지역별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2002	김후진	전남지역 민가	전남지역을 수계에 의한 권역별로 나누고 이를 다시 내륙, 해안, 도서로 나누어 배치, 평면, 구조를 분석하여 민가의 공간형태 특징을 밝히고자 함	박사 학위
5	서남해 도서지역 민가의 근대성 연구	2015	김지민	서남해 도서지역	서남해도서지역의 근대민가 연구를 통해 건축 및 주거사의 특징을 고찰함	학회

도서지역 민가에 대한 주목할 만한 연구는 1984년 김선배의 연구[5]가 있다. 이 연구는 우

5) 김선배, 남해 도서지역 민가의 주거공간에 관한 연구 -완도, 고흥, 여천지역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리나라 남서해안 연안과 고흥지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민가 주거공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일환으로 완도, 고흥, 여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어촌민가의 주거공간이 갖는 특성을 현상적 입장에서 고찰하였고 지역특성을 주거성에 알맞은 새로운 주거공간계획의 기초적 참고자료에 목적을 둔 연구로 평가된다.

연구의 내용으로는 민가 공간의 구성은 마당을 중심으로 주거공간과 부속사 및 가내작업공간, 수용공간으로 되어 있는 점, 건축물의 배치형태는 ㄱ자, 二자, ㄷ자, awk의 순서로 비대칭을 이루고 안채는 3칸형과 4칸형이 주를 이루는 점, 각 방 및 주호의 주위에는 복합적이고 수장의 기능을 갖는 공간이 존재한다는 점, 평균 대지면적은 50여평, 평균 건축면적은 12평으로 소규모의 민가가 주를 이루는 점, 정지의 비위생적인 환경과 낮은 소득수준 등으로 인한 민가의 주거공간이 열악하다는 점 등이다.

조상현의 연구에서는 전남 여천지역의 민가를 대상으로 실측조사하여 가옥의 배치형태, 안채의 평면형태, 안채의 구조형태를 분석하여 각 유형을 분류하였고, 이를 토대로 여천지역 민가의 건축적 특징을 밝히고자 한 것으로 안채의 평면형태는 일자형, 이자형 ㄱ자형으로 나타나고 부속채와의 배치형태는 일자형과 ㄱ자형이 주로 나타난다.[6)]

평면의 구성은 간수와 전퇴의 유무에 따라 나누었으며 그중 3간전퇴형, 4간전퇴형, 4간전후퇴형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구조적인 부분 90~120cm의 기단의 자연석주초위에 방주를 세웠으며 그 위에 방형의 보와 방형의 도리가 결구되고 지붕의 형태는 우진각의 초가가 일반적임을 밝히고 있다.[7)]

박선주의 연구에서는 민가의 지역별 평면 특성을 살피고, 대표적인 평면의 형식을 파악하였는데 옹진반도지역 도서민가는 一자형의 겹집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집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세겹집이나 자집을 만들기도 한다.[8)]

실이 두 줄로 배치되는 一자의 겹집은 앞 열에는 봉당과 사랑방이 위치하고 그 뒤로 안방이 놓이며, 봉당과 안방의 측면으로 부엌이 자리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평면의 중심공간이 봉당이 되고, 집 내부의 모든 동선이 이곳에서 모이고 흩어진다고 기술하였다.[9)]

---

6) 조상현, 전남 여천지역 민가의 특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7, pp.84~85

7) 조상현, 전남 여천지역 민가의 특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7, pp.84~85

8) 박선주, 서해도서민가 평면형식의 지역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pp.170~171

9) 박선주, 서해도서민가 평면형식의 지역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pp.170~17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경기만지역은 평면의 특성상 크게는 2개, 작게는 4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지고 2개의 지역구분은 경기만 북부지역과 중남부지역으로 북부지역은 옹진반도권의 영향으로 봉당이 평면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겹집의 형식을 가지는 것이 특징으로 육간팔자집이라는 독특한 유형이 유일하게 나타나는 곳으로 설명하고 있다.[10)]

그러나 一자, 자, ㄷ자, 口자집이 다양하게 분포하는 경기만 지역의 특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 4가지의 양식이 다 공존하는 곳인데 반해 경기만 중남부지역은 내륙에서의 거리와 남북의 위치에 따라 회침공간의 유무와 대청의 개폐성 등에 있어서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안방- 부엌- 대청- 건넌방의 연결방식에 있어서는 같은 형식을 취하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11)]

충청남도 도서지역은 부엌 옆으로 방이 나란히 연결되면서 방의 전면으로는 긴 툇마루가 이어지는 전형적인 一자 홑집을 구성하는 것이 기본이고 집의 규모가 커지는 경우에도 꺾음집을 만들기보다는 측면으로 실이 늘어나는 경우가 더 많고, 일부분의 사례에서 ㄱ자집을 구성하기도 하지만 이는 대부분이 증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12)]

전라북도 도서지역은 一자집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수장공간을 안채에 포함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방 부분을 횡분할하여 겹집 혹은 부분겹집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다른지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평면의 구성방식으로 전라남도 도서지역은 역시 一자집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평면의 구성요소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13)]

수장공간을 안채의 기본적인 요소로 두는 것은 전라북도와 마찬가지이지만 이 지역 민가 중에서 가장 작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3칸집에서도 큰방의 옆으로 마래라고 공간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14)]

이 지역 역시 집의 규모가 커져도 꺾음집을 만드는 예는 없으며 주로 정지쪽에 실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설비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방향을 택하고 있다.[15)]

---

10) 박선주, 서해도서민가 평면형식의 지역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pp.170~171

11) 박선주, 서해도서민가 평면형식의 지역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pp.170~171

12) 박선주, 서해도서민가 평면형식의 지역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pp.170~171

13) 박선주, 서해도서민가 평면형식의 지역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pp.170~171

14) 박선주, 서해도서민가 평면형식의 지역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pp.170~171

15) 박선주, 서해도서민가 평면형식의 지역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pp.170~17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김지민의 연구는 도서민의 주거 정체성과 한국 주거사에서 도서지역이 차지하는 의미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16]

연구의 내용은 서남해 도서지역의 전통 주거문화는 17~18세기 새로운 입도조에 의해 뿌리를 내리고 그 이후 다시 도서환경에 맞게 발전, 세대를 거치면서 고착되었다고 하였고 현재 남아있는 목조 주택들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 무렵에 지어진 것이 대부분으로 이들은 입도 후 처음 집터를 정한 후 2~3번째의 집으로 추정하였다.[17]

마을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집촌으로 내륙보다 집촌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로 토지이용의 한계가 가져다주는 물리적 측면과 공적인 협동의 관계가 더욱 요구되는 도서성이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내다보았다.[18]

민가의 내부공간 구성은 건물구성의 단순과 대지의 협소 등으로 인해 큰 변화없이 단순하고 가옥입구의 안길에서 안마당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안채가 자리하며, 행랑채가 있을 경우는 향이나 가옥 입구방향과 관계없이 대지의 좌측 내지 우측에 안채와 트여진 직각형태로 자리한다고 하였다.[19]

모든 가옥에서 건립되었던 측간채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기 보다 대지 형편에 따라 가옥 입구 내지는 대지 한쪽에 편리하게 자리잡았다고 하였고 안채의 평면체계는 정지, 안방, 마래로 구성되는 유형과 작은방이 추가된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보편적인 도서지역의 가옥규모라고 하였다.[20]

특히 신안군 지역 도서에서는 작은방이 정지 앞 모퉁이에 위치하여 ㄱ자형을 연상케 하는 반면에 완도군 지역과 먼바다에 위치한 흑산도 지역에서는 작은방이 완전히 정지의 측면에 위치하여 상당히 독립적으로 형성되는데 남부지역의 전형인 一자형을 이룬다고 하였다.[21]

또한 여수 및 고흥반도와 인근도서에서는 작은방이 마래 옆으로 가는데 경상도 연안도서에서 보편적인 유형으로 마래의 호칭이 안청이라고 언급하였다.[22]

---

16) 김지민, 한국 도서지방의 전통민가, 도서문화 제20집, 2002

17) 김지민, 한국 도서지방의 전통민가, 도서문화 제20집, 2002, pp.186~189

18) 김지민, 한국 도서지방의 전통민가, 도서문화 제20집, 2002, pp.186~189

19) 김지민, 한국 도서지방의 전통민가, 도서문화 제20집, 2002, pp.186~189

20) 김지민, 한국 도서지방의 전통민가, 도서문화 제20집, 2002, pp.186~189

21) 김지민, 한국 도서지방의 전통민가, 도서문화 제20집, 2002, pp.186~189

22) 김지민, 한국 도서지방의 전통민가, 도서문화 제20집, 2002, pp.186~189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김후진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가옥들의 위치를 살펴 영산강권, 탐진강권, 섬진강권으로 나누었으며 각 권역 내에서는 지리적 위치에 따라 각각 2개의 소지역으로 구분하여 총 6개 지역으로 나누었다.[23)]

먼저 영산강 권은 해안에 위치해 있는 영광군과 함평군의 민가를 1지역, 내륙에 위치한 장성군, 담양군, 화순군은 2지역으로 구분하고 섬진강 권도 동일하게 해안에 위치한 광양군, 고흥군, 순천시, 여수시를 1지역, 내륙에 위치한 구례군, 곡성군, 보성군을 2지역으로 구분하였다.[24)]

그러나 탐진강 권은 대상가옥들이 도서에 위치해 있어 서해에 위치한 신안군, 진도군을 1지역, 남해에 위치한 완도군을 2지역을 구분하였다.[25)]

이러한 지리적 조건을 통해 구분한 6개 지역민가의 공간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석의 항목을 크게 배치, 평면, 공간구조로 나누었고 먼저 배치에 관한 분석에서는 통계적 수법을 이용하여 안채의 좌향, 안채에서 대문, 부속채까지의 거리와 위치, 진입방식, 배치유형을 파악하였다.[26)]

다음 평면에 관한 분석에서는 안채와 부속채를 이루는 단위공간들을 정리하여 공간구성요소를 분석하였고 분석방법은 간수별 구성요소의 차이와 이에 따른 간수별 평면 형태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단위요소 중 부엌과 툇마루에 대해서는 간수별 평면형태의 변화도 살폈으며 구성요소를 기능별로 분류하여 구성비를 파악하였으며 안채와 안방, 부엌에 대해 평균과 장단변비를 파악하였다.[27)]

이러한 평면분석항목을 기반으로 공간구성의 얼개를 살펴 안채 평면을 유형화 하였다.[28)]

김지민의 연구에서는 20세기 초에서 중반사이에 서남해 도서지역에 건립 된 민가를 대상으로 그에 대한 근대성을 고찰하고 근대성의 도입 주체, 건물의 구성, 안채와 사랑채의 내부공간 구성, 집의 구조 양식 등을 살펴보았다.[29)]

---

23) 김후진, 전남지방 민가의 지역별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p.5

24) 김후진, 전남지방 민가의 지역별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p.5

25) 김후진, 전남지방 민가의 지역별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p.206

26) 김후진, 전남지방 민가의 지역별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pp.3~7

27) 김후진, 전남지방 민가의 지역별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p.6

28) 김후진, 전남지방 민가의 지역별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에서 재인용

29) 김지민, 서남해 도서지역 민가의 근대성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7권 3호, 2015, p.70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2 신안지역 민가 고찰

2.2.1 신안지역의 거주 역사

신안군 도서지역에는 패총, 지석묘 등의 신석기 및 청동기시대 선사유적이 발굴 조사되어 오래전부터 거주지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당시의 주거유형은 내륙지방에서와 같은 원시적인 수혈주거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사실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주거지는 아직 발굴 보고된 바가 없다. 또한 구석기시대의 유적은 신안지역에서 발견된 바가 없어 이 지역에서 최초로 삶을 영위한 주민들은 신석기시대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삼국시대에 신안의 여러 섬들은 정확한 수치나 규모의 대소는 밝힐 수 없으나 몇 개의 군, 현으로 나뉘어 통치되고 있었다. 그 후 고려의 반도통일과 그 중앙 집권력이 강화되면서 이들 서남해 도서들은 인접한 내륙의 군현인 나주와 영암 등에 예속되기 시작하였다.[30]

통일신라시대에도 이 지역에는 많은 주민이 살고 있었던 사실이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고려말기에는 왜구의 침입이 빈번하여 대부분의 섬주민은 내륙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동국여지승람의 전라도 나주목조에는 고려말 왜구의 침입이 빈발하자, 흑산도 사람들이 현재의 영산포지역으로 집단이주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31]

조선 초기에 들어서 왜구의 격퇴와 국가 기반이 탄탄해진 이후, 해안 근처 주민의 도서의 입도는 급속히 전개되었으나 200여년도 못되어 임진왜란으로 다시 섬을 비우게 되어 문화의 공백기를 맞게 되었다. 임진왜란 이후인 17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새로운 도서 이주민들은 대개 해로를 사이에 둔 내륙 연안의 주민들로 해남, 영암, 진도인의 이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2.2 신안지역의 민가 고찰

살림집의 외형은 일반적으로 자연 및 사회, 문화적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장소성과 생활양식, 그리고 재료공급과 기술적 문제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집에는 건물을 포함하여 대지, 토지, 생산행위 등이 총체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후가 다르고 생활조건이 다르면 그에 상응하는 건축의 형태가 형성된다.[32]

---

30) 김지민, 신안 도서지역 전통민가, 도서문화 제7집, 1989, p.191

31) 동국여지승람, 나주목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신안 지역 민가의 건립 시기는 대개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넓은 분포를 보이지만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건립된 건축물이 대부분이다. 가옥들은 대부분 안채를 기본으로 창고, 헛간 등의 부속채로 이루어진다. 신안지역 민가의 좌향 및 배치적 특징은 배치에 있어서 안채의 앞에 마당이 있는 단독형의 배치가 가장 많고 ㄱ 자형과 ㄷ 자형배치도 많다. 안채의 좌향은 동동남(EES)에서 서서남(WWE)사이가 대부분으로 동남(ES)향이 가장 많아, 내륙지방의 안채 좌향과 비슷하다. 부속채와 대문, 안채로 만들어지는 동선거리는 약 5~15m 사이에 분포되어있으며 이중 부속채는 안채의 동쪽과 서쪽에 위치하며 대문은 남동과 남서에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가옥으로의 출입이 대지의 모서리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평면적 특징은 먼저 공간요소로 살펴보았을 때 안채의 안방, 마래, 부엌, 전퇴와 부속채에서 화장실은 조사대상 가옥에서 모두 나타나 가옥의 기본구성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공간의 기능의 사용면에서는 안채에서는 주로 일상거처 공간, 가사노동공간, 접객·단란공간이 높은 구성비율을 보이며 부속채 에서는 위생공간과 수장공간이 높은 비율을 이루고 있어 주생활은 안채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부속채는 부대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한다.[33)]

특히 신안지역의 민가는 실용성 위주의 건축개념이 우선하여 장식적 요소와 구조의 복잡성 등은 배제되어 있는 기본적인 5량구조가 일반적이다. 전면에 퇴칸을 설치한 4량구조와 실의 확장을 위해 후면에 다시 퇴보를 설치한 5량구조도 눈에 띠는데 건축물 전체에 적용된 것은 아니고 주로 큰방과 마래 쪽의 실만 넓은 구조이다. 이는 협소한 실내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으로 설명된다.

벽체는 심벽구조의 흙벽이 주를 이루고 죽담구조도 확인할 수 있다. 지붕은 우진각의 초가지붕의 형태를 취하는데, 마름(이엉) 1장을 엮는데 필요한 볏짚은 7~8단으로 5칸집은 70~80장의 마름이 필요하다. 기단은 막돌 1단의 구조가 가장 많으나 최근 시멘트로 마감한 경우도 있다. 초석은 박돌, 기둥의 120㎜~130㎜의 각주가 쓰였다. 전면 기둥의 높이는 2,100㎜ 가량이고 내부의 고주는 200㎜~300㎜ 높다. 도리 및 보는 일정한 치수를 갖지 않고 면마감은 거친 편이다. 창호는 상여닫이의 판장문이 설치되어 있고 정지는 뒤로 통하는 문이 있으나 마래는 배면에 문이 없는 경우도 있다. 소규모가옥인만큼 전면의 문은 외짝으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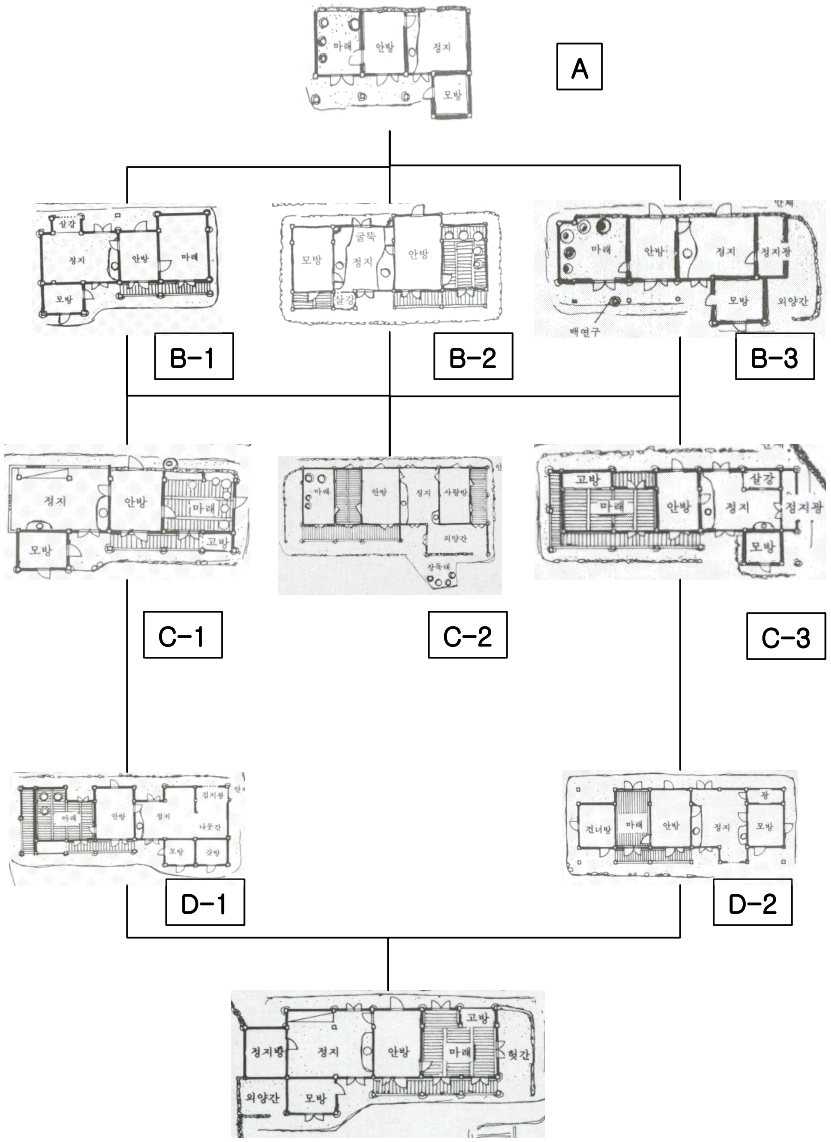
32) 김지민, 한국 도서지방의 전통민가, 도서문화 제20집, 2002, p.181

33) 김지민, 한국 도서지방의 전통민가, 도서문화 제20집, 2002, p.18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된다. 외짝문 바로 옆에는 봉창이 있는데 전라남도의 해안지역 및 도서지역의 가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의 창호이다.34)



34) 김지민, 한국 도서지방의 전통민가, 도서문화 제20집, 2002, pp.182~18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김환기화백의 생애와 작품활동

3.1 유년시대

수화 김환기화백은 1913년 전라남도 신안군 기좌도에서 태어났다. 어린시절을 섬에서 보낸 수화는 이후 펼쳐내는 본인 회화의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유년기 때부터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생가의 옆에는 어린 시절부터 그림 작업에 전념하였다.

1921년 4월에는 당시 기좌도에 있었던 안좌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였고, 1927년 서울에 있는 중동중학교에 재학 중 적응하지 못하여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후 잠시 집에 머물다가 1931년 일본 도쿄에 있는 니시키시로 중학교로 입학하였다.[35)]

3.2 일본유학시대

1932년 중학교를 졸업하고 20세에 안좌도로 돌아와 결혼을 하였다. 그러나 다시 동경 유학에 대한 희망을 품고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부친이 학비를 송금하게 되면서 1933년 4월에는 동경에 있는 니혼대학교 예술학원 미술부에 입학하여 김환기의 예술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36)]

1934년 일본 유학 시절 김환기는 이미 유럽의 미술을 접하고 국제무대에서 인정받고 돌아온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스승 도고세이지와 후지타 츠쿠지로부터 입체파[37)]와 미래파[38)] 등

35) 이미화, 김환기 작품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2017, p.4

36) 환기재단 환기미술관, 김환기탄생 100주년 Ⅰ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환기재단, 2013, p. 11.

37) 김환기를 비롯한 유영국(劉永國), 이규상(李揆祥) 등은 일본에서 자유미술가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입체파에서 파생된 기하학적 추상작품을 제작하여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가 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입체파의 영향이 가장 두드러졌던 시기는 1950년대였다. 1950년대 전반에는 피카소, 브라크, 몬드리안, 미래주의 등 세잔 이후 서구의 현대미술에 대한 소개가 문예잡지를 통해 많이 소개되었다. 대부분 1950년대에 입체주의에 관심을 가졌던 작가는 일제강점기부터 활약했던 중진급 화가들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함대정(咸大正)의 「소」(1956)는 대상을 날카로운 기하학적 형태로 분해하고 대상과 공간을 통합하며 마치 조각과 같은 물리적 존재를 느끼게 하여 브라크가 레스타크에서 작업한 1908년의 풍경화를 연상시킨다. 한묵(韓默)의 「가족」(1957)도 인물과 배경이 단순한 기하학적 면으로 분해되고 있어 브라크의 1930년대 작품과 유사한 면이 있다. 이 밖에 변영원(邊永園)의 「반공여혼」(1952)은 피카소의 「게르니카」(1937)의 영향을 보여주며 박영선(朴泳善)의 「파리의 곡예사」(1957)는 피카소의 「곡예사의 가족」(1905)이나 들로네의 「파리」(1910~12)를 결합시킨 느낌이다. 1950년대에는 동양화가들 사이에도 입체파에 대한 관심이 나타났다. 박래현(朴崍賢)의 「노점」(1956)은 인물과 주변의 배경을 기하학적으로 분해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38) 20세기 초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난 예술운동. 시인 마리네티가 1909년 2월 20일 자 파리 일간지 『Le Figaro(피가로)』지에 최초로 〈미래파 선언〉을 발표하고, 이듬해인 10년 3월 8일 보치오니, 칼라, 루소로, 발라, 세베리니가 트리노의 키아레라 극장에서 3000명의 관중 앞에서 이탈리아 최초로 미래파운동 선언을 하였다. '신시대는 그에 적합한 생활양식과 표현을 필요로 한다'라고 선언하고, 일체의 과거를 청산하고 속도를 표현하고 다이내믹한 힘이 용솟음치는 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서양의 새로운 미술 경향을 익히며 추상미술을 시도하게 되는데 그 당시 수화 김환기의 작품들은 물체를 여러 각도에서 보고 표현하는 후기 입체파적 시도가 보이는 동시 숨어 있는 한국 정서를 밖으로 표출하려는 의지가 돋보이는 정서적 측면도 짙어 보인다.39)

텍스트 보기

青年畫家金煥基君(청년화가김환기군) 二科展(이과전)에 初入選(초입선)=

동아일보 | 1935.09.06 기사(hwp)

青年畫家金煥基君(청년화가김환기군)
二科展(이과전)에 初入選(초입선)=

조선사람으로 이번에 일본내지의 이과전(二科展(이과전))에 입선한사람이 또하나 낫다.

그는 전남무안군 안파면 읍동(務安郡安岳面邑洞(무안군안파면읍동))출생으로 당년 二十三(이십삼)세의 청년화가김환기(金煥基(김환기))군이다.

현재 그가 배우고있는곳은일본대학예술과 미술부(日本大學藝術科美術部(일본대학예술과미술부))인데 지난 봄 백일화전(白日會展(백일화전))과광풍화전(光風會展(광풍화전))에도입선한일이 잇섯고 이번이과전에도 보기조케 입선되엇는데그그림의명제는"종달새홀때"라는것으로 상당히 우수하다하며 적요한 우리화단에 이채를 던저주고잇다 한다.

(사진은 김환기군)

현재사전 바로가기 ›

그림 2. 1935년 9월 6일 김환기 이과전 입선에 관한 동아일보기사

대학시절 김환기는 동료들과 '아방가르드 양화연구소'(1934)나 '백만회'(1936) 같은 혁신적인 그룹을 조직하는 한편 '이과회'와 '자유미술가협회전'에 출품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는데 이 시기에 그가 출품한 작품들에는 대부분 직선과 곡선, 그리고 기하학적 형태들로 구성된, 당시 한국 화단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비대상회화가 대담하게 시도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선구적인 추상화가로서의 그의 초기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40) 그의 《론도》(1938) 같은 작품을 보면 음악적인 주제와 어울리는 흐르는 듯한 서정적 운율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음악적 서정은 이후에도 그의 작품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요소이다.41)

계문명 감각을 강하게 표현할 것을 주장했다. 마리네티는 속력, 모험, 투쟁, 전쟁, 군국주의, 애국심 무정부주의적 파괴정신, 여성에 대한 모멸을 주장하고 미술관과 도서관을 파괴하자고 말했다. 조형적인 관점에서, 미래파는 대상의 물질을 파괴하고 큐비즘에서 얻은 동시성의 사상을 화면에 정착시켰다. 그리하여 '운동'의 표현에 새로운 길을 개척한 점을 인정받고 있다. 보치오니의 조각에서도 같은 표현이 보인다. 1915년경까지 운동을 벌인 후 중지되었으나, 다다와 20세기 예술의 여러 운동에 미친 영향은 크다, 미술대사전(용어편), 1998, 한국사전연구사

39) 환기재단 환기미술관, 김환기탄생 100주년 Ⅰ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환기재단, 2013, p. 11.

40) 두산백과, 김환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73391&cid=40942&categoryId=34387

41) 두산백과, 김환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73391&cid=40942&categoryId=34387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3 서울시대

1937년 4월 김환기는 귀국을 하여 서울과 기좌도를 오고가며 일본에 작품을 보낸 김환기는 1940년 10월 서울의 정자 옥화랑에서 제2회 개인전을 가졌으나 어떤 작품이 출품되었는지는 구체적 자료가 없다.[42]

1942년에 첫 부인과 이혼하고 1944년 서울의 일본 기독 청년 회관에서 고희동의 주례로 김향안과 재혼하여 성북동에 신혼살림을 차렸는데 후에 김향안의 도움으로 예술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것도 김환기의 조형 영역에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43]

소강상태였던 김환기의 활동도 해방 후 1947년경에 와서야 다시 활기를 되찾았는데 김환기를 중심으로 신사실파가 태동하기 시작하였고 창립전이 열린 것은 이듬해인 1948년이었다.[44]

그림 3. 1948년 10월 10일 김향안에 관한 경향신문 기사

해방 이후 김환기는 유영국, 이규상 등과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미술 그룹인 '신사실파'를 조직하고 그룹전을 여는 등 계몽에도 관심이 많은 그는 서구의 양식을 실험하였고 반면 한국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한국 전쟁 중에는 부산으로 피난을 가서 해군 소속의 종군화가로 활동하며 부산 피난시절을 그린 작품들을 남기기도 했다.

---

42) 이미화, 김환기 작품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2017, p.8

43) 이미화, 김환기 작품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2017, p.8

44) 이미화, 김환기 작품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2017, p.8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4 파리시대

1950년대 김환기 작품세계의 특징은 선정된 주제가 전통적인 소재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달, 백자, 산, 강, 꽃, 여자, 나무 등의 소재를 통해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풍류를 표현했다. 특히 김환기는 백자의 아름다움에 깊이 심취하여 그의 작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자주 사용하는 소재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1956년에서 1959년까지의 파리 시기에도 지속되었다.[45)]

3.5 서울시대

그의 한국적 모티프에 대한 탐닉은 파리에서의 제작 기간 동안 그 농도를 더했다. 그가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 루브르 박물관에도 가지 않았던 이야기는 익히 잘 알려져 있다. 그는 항아리, 십장생, 매화 등을 기본으로 한 추상 정물화 작업을 선보였고, 이는 후에 고국산천의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김환기의 색채는 화면 가득 푸른색을 띠게 되었다. 그에게 푸른색은 고국의 하늘과 바다의 색이고, 그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색이기도 했다.[46)]

3.6 뉴욕시대

그러다 1963년 제 7회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출품 작가이면서 동시에 대표자격인 커미셔너 자격으로 떠나 참가 한 후 뉴욕에 잠깐 들러 온다는 것이 돌아오지 않게 되었다.[47)]

1964년 록펠러 재단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 해와 1965년에 그의 조형적인 변화는 빠르게 진척되었다.[48)]

자연의 모티브는 사라지고 순수한 조형요소인 색 면과 색 점 색, 선 등 점, 선, 면의 구성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1964년에 뉴욕의 아시아 하우스 화랑에서 첫 개인전을 갖게 되는데 뉴욕타임스의 평은 그리 좋지 않았다.[49)]

---

45) 두산백과, 김환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73391&cid=40942&categoryId=34387

46) 두산백과, 김환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73391&cid=40942&categoryId=34387

47) 오광수, 김환기 영원한 망향의 화가, 열화당, 1997, pp.112~113

48) 오광수, 김환기 영원한 망향의 화가, 열화당, 1997, pp.112~113

49) 오광수, 김환기 영원한 망향의 화가, 열화당, 1997, pp.112~11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4. 1963년 5월 25일 상파울루 비엔날레 출품에 관한 경향신문 기사

그의 뉴욕 시기 작품은 크게 형상이 남아 있는 1970년 이전과 점과 선만의 완전한 추상으로 화면 전체가 변하는 1970년 이후로 나눌 수 있다.[50]

1970년에서 그가 타계한 1974년까지는 그의 활동이 절정에 이른 시기이다. 1970년부터 김환기의 캔버스는 전체가 점들로 가득차기 시작했다.[51]

1970년에 제작한 점화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작품이 그 해 한국일보에서 주최한 제1회 한국미술대상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이다.[52]

50) 두산백과, 김환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73391&cid=40942&categoryId=34387

51) 두산백과, 김환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73391&cid=40942&categoryId=34387

52) 두산백과, 김환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73391&cid=40942&categoryId=34387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5. 1970년 6월 9일 김환기화백의 한국미술대전 대상 수상에 관한 동아일보 기사

김광섭의 시 <저녁에>의 마지막 구절을 제목으로 가져다 쓴 이 작품에서 김환기는 뉴욕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수많은 인연들을 하나하나의 점으로 새겨 넣었다. 여기에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우주적 윤회를 담고 있다. 한 점 한 점 찍어가는 행위는 호흡을 고르고 정신을 집중하여 자연과 합일을 이루는 과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의 작업은 문인화의 정신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53]

김환기는 1974년 7월 갑작스런 뇌출혈로 뉴욕의 한 병원에 입원했으나 끝내 일어나지 못했다. 한국적 풍류와 정취를 지닌 인정 많은 감성의 소유자였던 그는 온몸으로 예술을 살다가 이렇게 61세의 생을 마감했다.[54]

53) 두산백과, 김환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73391&cid=40942&categoryId=34387

54) 두산백과, 김환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73391&cid=40942&categoryId=34387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913년	1세	2월 27일 전라남도 신안군 기좌도(이후 완좌도로 이름이 바뀌다)에서 김상현씨의 1남 4녀 중 넷째로 출생.
1921년	9세	4월 안좌공립보통학교에 입학.
1927년	15세	서울에 올라와 중동중학교에 입학하였으나 곧 중퇴하고 다시 섬으로 내려감.
1931년	19세	일본 동경으로 가 니시키시로중학교에 입학.
1932년	20세	니시키시로중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결혼함. 그러나 다시 몰래 일본으로 밀항.
1933년	21세	4월 부친이 학비를 송금하면서 동경의 일본대학 예술학원 미술학부에 입학.
1936년	24세	일본대학을 졸업하고 이 대학 미술부 연구과에 진학.
1937년	25세	서울로 돌아옴.
1942년	30세	첫 부인과 이혼.
1944년	32세	김향안과 재혼. 성북동에서 신혼살림을 차림.
1948년	36세	서울대학교 예술학부 미술과 교수로 재직.
1951년	39세	1·4 후퇴 때 부산으로 피란하여 종군화가가 됨.
1952년	40세	부산에서 홍익대학교 교수가 됨.
1954년	42세	대학민국 예술원 회원에 임명.
1956년	44세	도불전을 서울 동화화랑에서 개최. 파리에 가 베네지트 화랑에서 개인전을 가짐.
1959년	47세	한국으로 돌아옴.
1962년	50세	홍익미술대학의 초대 학장이 됨.
1963년	51세	'제7회 상 파울루 비엔날레'에 출품. 이후 뉴욕으로 건너감.
1964년	52세	뉴욕의 아시아 하우스 화랑에서 미국에서의 첫 개인전을 가짐.
1970년	58세	한국일보사의 '제1회 한국미술대상전'에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를 출품하여 대상을 받음.
1972년	60세	포인덱스터 화랑에서 개인전을 가짐.
1974년	62세	7월 12일에 수술. 그 후 의식불명으로 12일간 있다가 7월 25일에 타계.
1992년	사후	서울 부암동에 환기미술관 건립.

그림 6. 김환기화백 연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 김환기가옥의 원형복원을 위한 분석

4.1 김환기가옥의 경관

4.1.1 주변현황

김환기가옥이 위치하는 읍동리는 대부분 낮은 산지와 평지와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골짜기 안이 되므로 골안 또는 읍동이라 하였다. 자연마을로는 강가동, 와우, 앞내리마을이 있다. 강가동마을은 읍동 서쪽에 있는 마을로 강씨가 먼저 살았다 하여 강가동이라 불린다. 와우는 읍동 동쪽에 있는 마을로 소가 누워있는 와우 형국이라 하여 와우라 하였다. 앞내리마을은 읍동 동쪽에 있는 마을로 읍동 앞인데 나루가 있었다 하여 앞내리 또는 전진으로 불렸다.

읍동리는 안좌면의 소재지로서 마진리와 복호리를 연결하는 지방도가 지나고 있다. 읍동, 연진, 앞너리, 소로지, 와우 등의 자연마을로 형성된 이곳은 본래 지도군 기좌면의 지역으로서, 골짜기 안이 되므로 골안, 또는 읍동이라 하였다.

그림 7.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주변 현황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와우리를 합하여 읍동리라 해서 무안군 기좌면에 편입되었다. 1917년 안좌면에 편입되고 1969년 신안군에 편입되었다. 안좌면의 소재지로서 한전지점, 경찰지서, 학교, 우체국, 농업협동조합 등의 기관이 있다. 총 면적은 2.84㎢이다.

그림 8. 김환기가옥 주변 현황

4.1.2 경관분석

안좌도의 서쪽으로 향하는 안좌서부길을 따라 이동하면 길의 우측으로 잔디마당이 있고 두 개의 단이 있는 터가 있는데 이곳이 수화 김환기화백의 생가이다. 잔디가 식재된 달걀형의 마당은 원래 2채의 집이 있었으나 현재 헐리고 잔디마당으로 조성되었는데 1995년 문화체육부와 미술의 해 조직위원회에서 김환기화백과 이곳 집을 기리기 위해 표지석을 세웠다. 잔디마당이 시작되는 곳에는 김환기가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길이 하나 있는데 안쪽은 공터가 있어 차량 4대 가량 주차할 수 있다. 김환기가옥의 정문은 최근에 지어진 것 같은 일각문이다. 가옥의 오른쪽에는 원래 화실로 사용되었던 건물이 위치해 있다.

김환기가옥은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정면 5칸, 측면 1칸의 전후우측에 퇴칸을 두고 있는 살림집으로써 신안지역 민가의 평면구조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 집은 김환기화백의 부친이 건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9. 김환기 가옥 주변 경관

그림 10. 김환기 가옥 주변 경관

그림 11. 김환기 가옥 전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1.3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검토

김환기가옥의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은 『문화재청 고시 제2007-81호』를 통해 2007년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당시에 설정되었다. 이후 『문화재청 고시 제2009-112호』를 통해 문화재구역이 조정되었는데, 문화재보호구역은 삭제되는 대신 문화재구역이 확대되었다.

2007년부터 대두된 문화재보호구역 완화를 비롯한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완화 정책이 최근의 추세이나, 김환기가옥을 비롯하여 주변의 경관유지와 문화재보존을 위해서는 문화재 보호구역의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재청 고시 제2010-111호』에 의거 김환기가옥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이 2007년에 설정된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에 근거하여 작성된 탓에 모순이 있으므로 문화재보호구역의 재설정,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다양한 문헌 고찰을 통해 김환기가옥의 일곽에는 원래 3동의 건축물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김환기가옥의 영역을 결정하고 이후 정비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사랑채의 경우 위성사진의 연도별 자료를 통해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화실의 경우도 지적도와 위성사진을 통해 그 위치와 건축특징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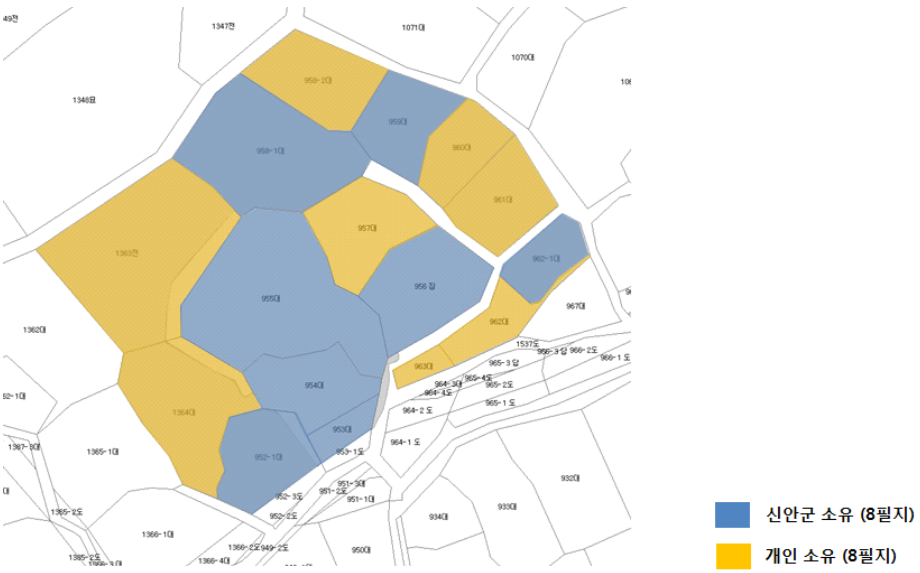


그림 12. 김환기가옥 및 주변의 토지소유 현황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53	대지	77㎡	77㎡	신안군	신안군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54	대지	268㎡	268㎡	〃	신안군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55	대지	826㎡	826㎡	〃	신안군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56	잡종지	377㎡	377㎡	〃	신안군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57	대지	317㎡	317㎡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47	정규용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62	대	150㎡	150㎡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815	손공례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63	대	50㎡	50㎡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1061	김맹선
합 계	7필지		2,065㎡	2,065㎡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보호구역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52-1	대지	295㎡	295㎡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1396	오영근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58-1	대지	635㎡	635㎡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1067	김출기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59	대지	265㎡	265㎡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1067	김출기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60	대지	215㎡	215㎡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60	김진각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61	대지	278㎡	278㎡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60	김진각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62-1	대지	161㎡	161㎡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70	오금성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1363	전	803㎡	803㎡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1399	김성국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1364	대지	476㎡	476㎡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1317	정충길
합 계	8필지			3,128㎡		

그림 13. 2007년 문화재청 고시 당시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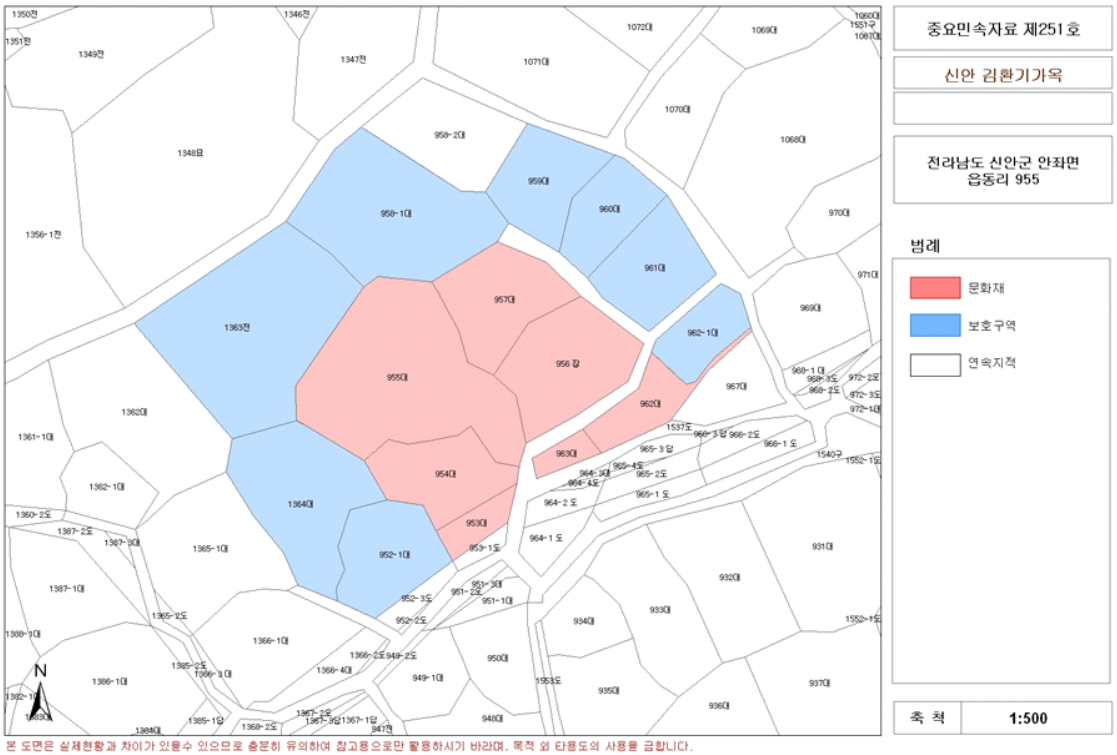


그림 14. 2007년 고시 문화재(지정·보호)구역 설정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문화재 현황										변 경		기 존		조정 내역
일련번호	지정번호	문화재명	수량	문화재 소재지	지번	지번 소유자	소유자 주소	지목	지적(㎡)	문화재 지정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문화재 지정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29	251	신안 김환기가옥	1곽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53	신안군		대지	77	77	-	77	-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54	신안군		대지	268	268	-	268	-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55	신안군		대지	826	826	-	826	-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56	신안군		잡종지	377	377	-	377	-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57	정규용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47	대지	317	317	-	317	-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62	손공례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815	대	150	150	-	150	-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63	김맹선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1061	대	50	50	-	50	-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52-1	오영근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1396	대지	295	25	-	-	295	축소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58-1	김줄기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1067	대지	635	-	-	-	635	삭제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59	김줄기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1067	대지	265	-	-	-	265	삭제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60	김진각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60	대지	215	-	-	-	215	삭제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61	김진각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60	대지	278	-	-	-	278	삭제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62-1	오금성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70	대지	161	-	-	-	161	삭제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1363	김성국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1399	전	803	86	-	-	803	축소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1364	정중길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1317	대지	476	45	-	-	476	축소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1537	국		도	18,133	19	-	-	-	포함

그림 15. 2009년 문화재(지정·보호)구역 조정에 따른 문화재구역 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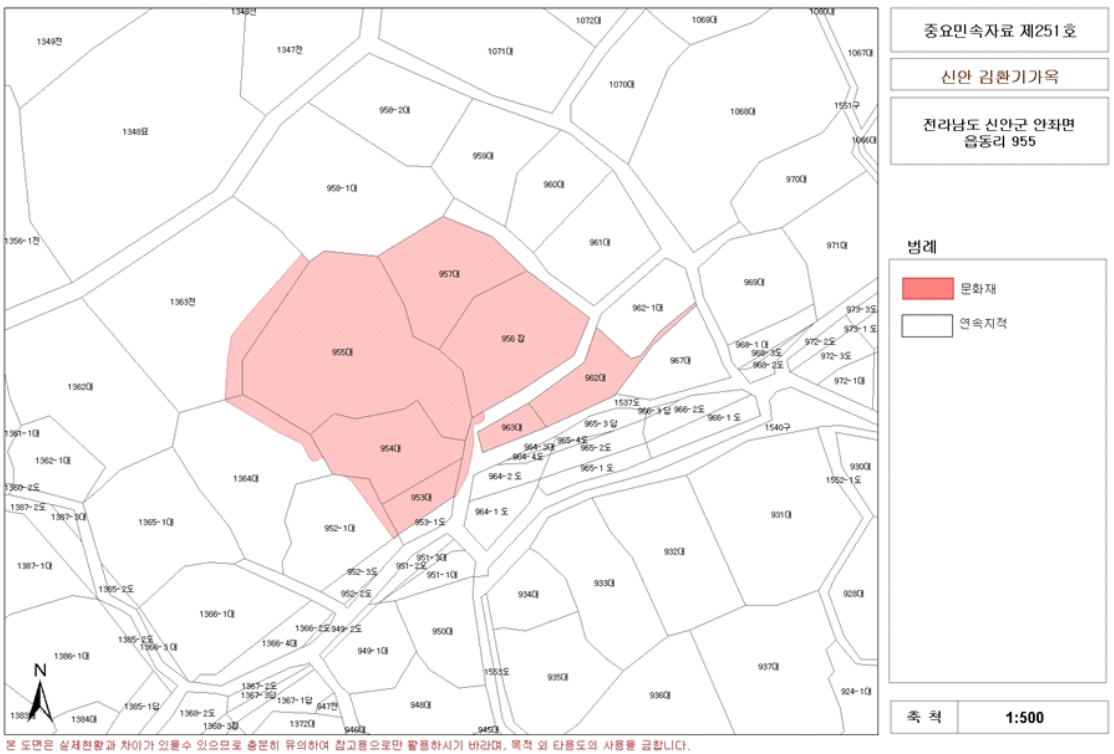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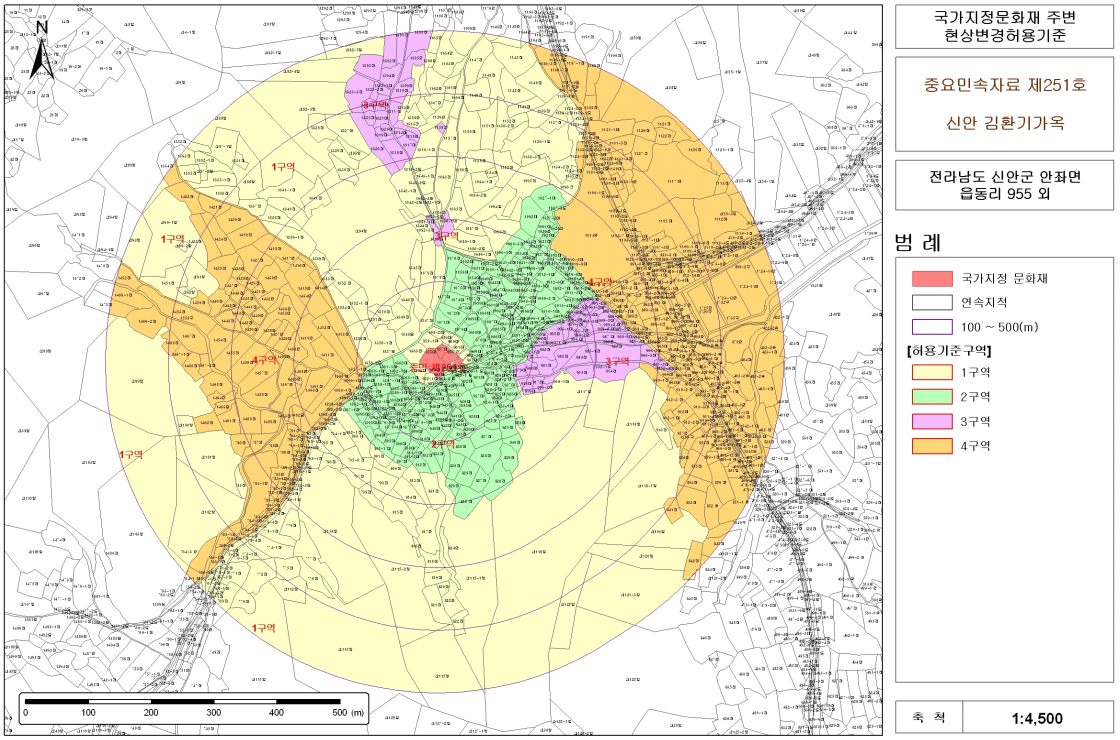


그림 16. 2009년 문화재(지정·보호)구역 조정에 따른 문화재구역 변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그림 17. 2010년 문화재청 고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2구역	ㅇ최고높이 7.5m(1층)이하	
3구역	ㅇ최고높이 8m(2층)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이하
4구역	ㅇ신안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4구역 제외)	ㅇ위 구역별 허용기준을 넘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 시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 2.3구역 : 재.개축도 허용(단, 2구역은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이외의 건축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이상의 절토·성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그림 18. 현상변경 허용기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2 김환기가옥의 현황

4.2.1 배치현황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김환기가옥은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읍동마을의 서북쪽에 자리잡고 있다. 이곳은 수화 김환기화백의 생가[55]로 정면 5칸의 안채와 살림집으로 활용하고 있는 화실로 구성된다.

안채는 1920년대에 건축되었다고 전해지는데, 기와를 비롯한 목조가구의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다. 안채의 동쪽에 건축된 화실은 1940년대에 건축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김환기화백의 유년시절에 건립되었다는 관련 자료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 시기보다 이른 안채의 건립시기와 비슷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소유주는 신안군으로 이곳을 활용하기 위해 종합정비계획을 완료한 상태이다. 안채와 화실 사이에 사랑채가 있었으나 1970년대에 훼철되어 현재는 공터로 남아있다. 김환기는 안채와 사랑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국내 유학시절 고향으로 오면 화실에서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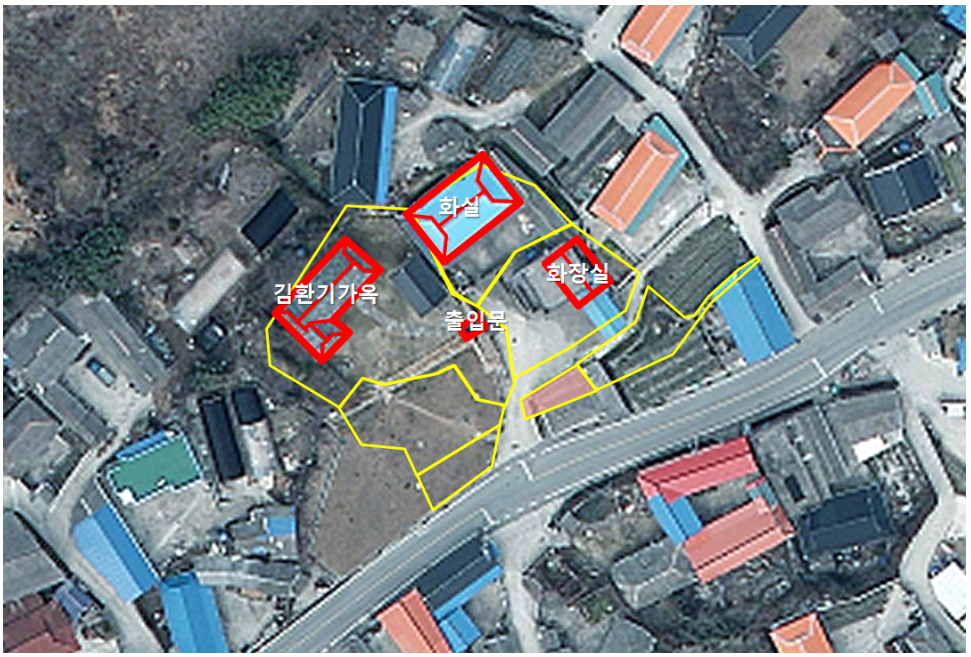


그림 19. 김환기가옥의 배치 현황

55) 연혁조사 결과, 생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20. 김환기가옥 전경

그림 21. 김환기가옥 전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22. 김환기가옥 화실 전경

그림 23. 김환기가옥 앞 화장실 전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2.2 가옥현황

안채는 ㄱ자형 기와집으로 왼쪽에서부터 곳간, 건넌방, 대청, 안방, 정지 순으로 배치하였고, 정지 앞쪽에서 꺾어져 다시 방 1칸을 두었다. 김환기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이라고 한다. 구조는 사각 주춧돌 위에 사각기둥을 세운 납도리집 형식이다. 문은 정지의 판장문만을 제외하고 모두 띠살문이며, 벽체는 회벽으로 마감되어 있다.

화실은 본래 초가였으나 현재는 시멘트 기와로 개조한 일(一)자형 납도리집이다. 현재 오른쪽 앞면에 방 2개가 있고 뒤쪽으로 정지, 그리고 왼쪽으로는 넓은 대청이 있으며 끝에 곳간이 있다. 원래는 왼쪽에 방 1칸과 현재의 정지 자리에 목욕칸만이 있었고, 곳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모두 넓은 대청으로 된 화실이었다고 한다. 현재 별도의 담장 안에 있다.

가) 안채(문화재지정 건물)

신안군 지역 민가(안채)의 구성은 작은 집은 3~4실, 다소 규모가 큰 집은 5~6실 정도로 이루어진다. 실의 내용은 정지(부엌), 큰방(안방), 정지방, 작은방 1~2개, 그리고 수장 공간인 마래(도장방, 마루방) 등이다. 이 실들이 가옥 규모 또는 지역에 따라 유기적으로 조합되어 전체를 이루고 있다.

정지, 안방, 마래, 모방(작은방)의 4실로 이루어진 유형이 전라남도 신안군 민가에서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보인다. 이 때 모방이 정지 전면 모퉁이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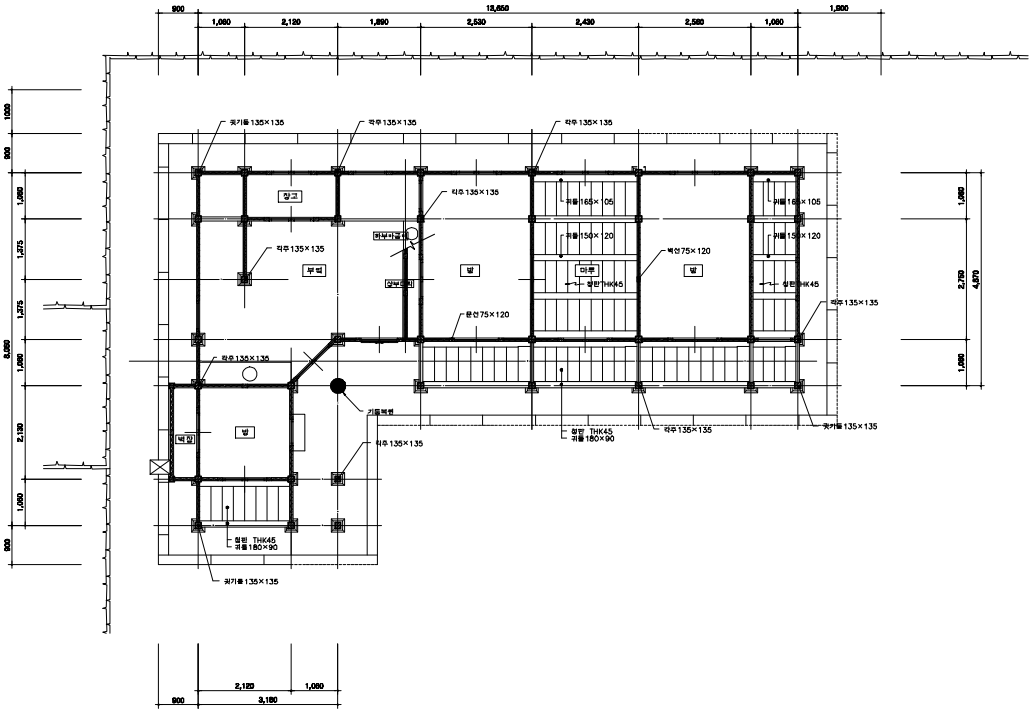
이 경우 많은 가옥에서 모방이 전면의 퇴주선보다 약 1m 정도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어 'ㅡ'자형 평면이지만 'ㄱ'자형을 연상케 한다. 전체적으로 안방, 정지, 모방이 유기적으로 잘 조합(집중)되어 있고 서로의 동선도 짧다. 이러한 유형은 서남해 도서지역 중에서도 특히 서해 도서의 민가 평면형식을 결정짓는 중요한 패턴이다.

한편 모방(작은방)을 정지 전면에 두지 않고 완전히 측면에 배치한 4실 구조의 'ㅡ'자형 형식도 보인다. 이 형식은 앞의 유형과 달리 모방의 독립성이 강하다. 출입도 전면의 툇마루를 통해 이루어진다.

김환기가옥의 경우 앞서 열거한 민가들보다 규모가 비교적 큰 사례로, 모방이 정지 앞으로 완전히 돌출되어 위치하는데 완형의 ㄱ자집의 형태인 점은 신안군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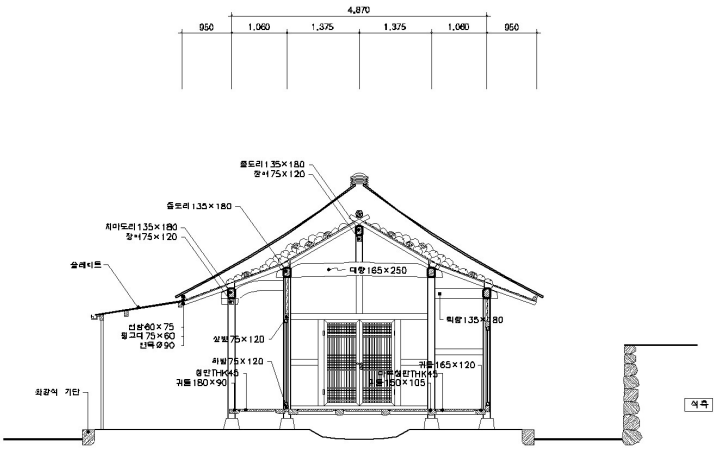


그림 25. 김환기가옥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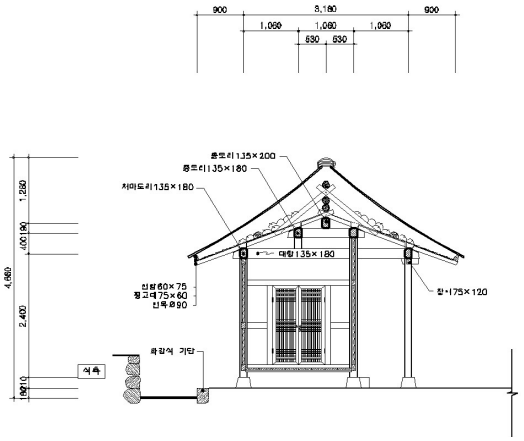


그림 26. 김환기가옥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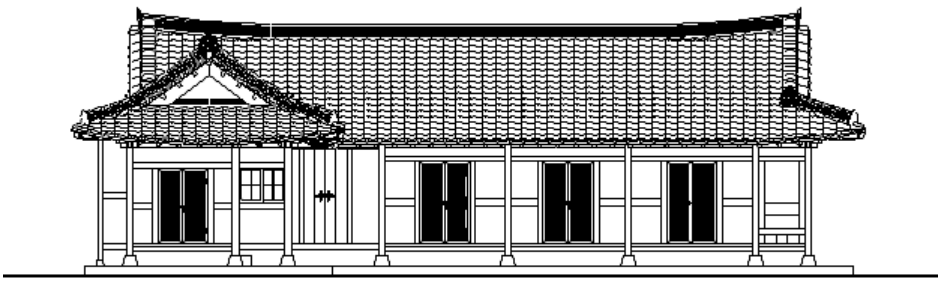


그림 27. 김환기가옥 정면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28. 김환기가옥 우측면도

김환기가옥의 보존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퇴적암 계열의 초석 사용으로 인한 초석 부식(腐蝕) 및 기둥하부 부후(腐朽) 관찰된다. 재해 예방에 필요한 시설이나 소방설비, 전기설비 등 이입요소의 노출로 인해 외관이 훼손되어 있다. 안채 마당의 배수가 불량하고 주변 배수로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잠재적 피해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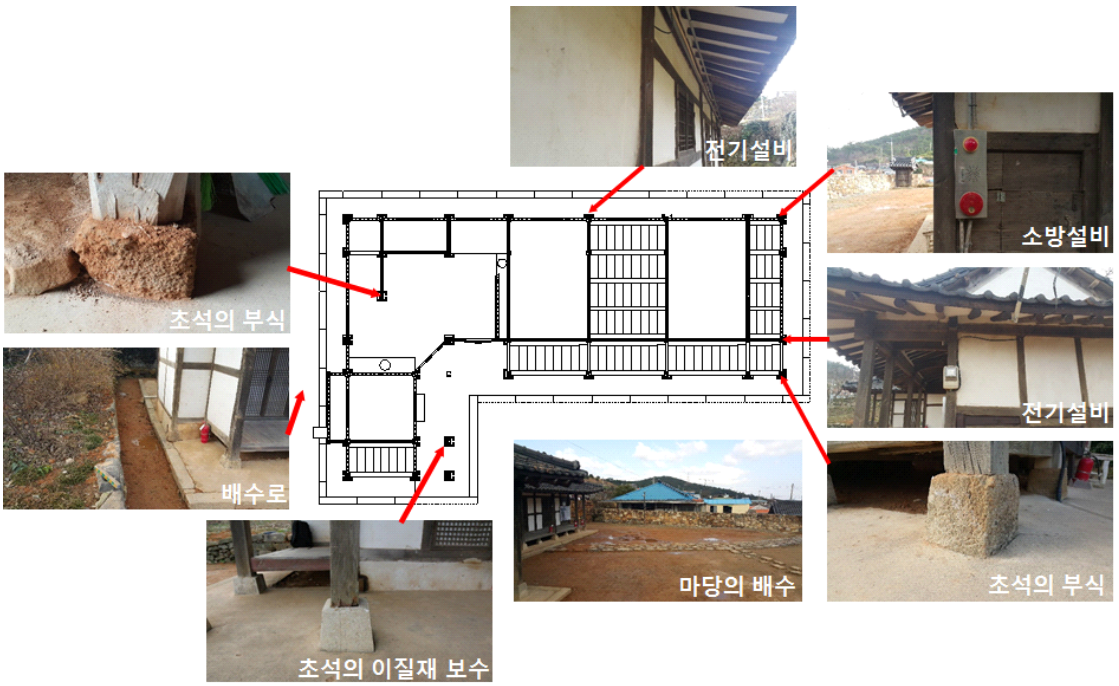


그림 29. 보존관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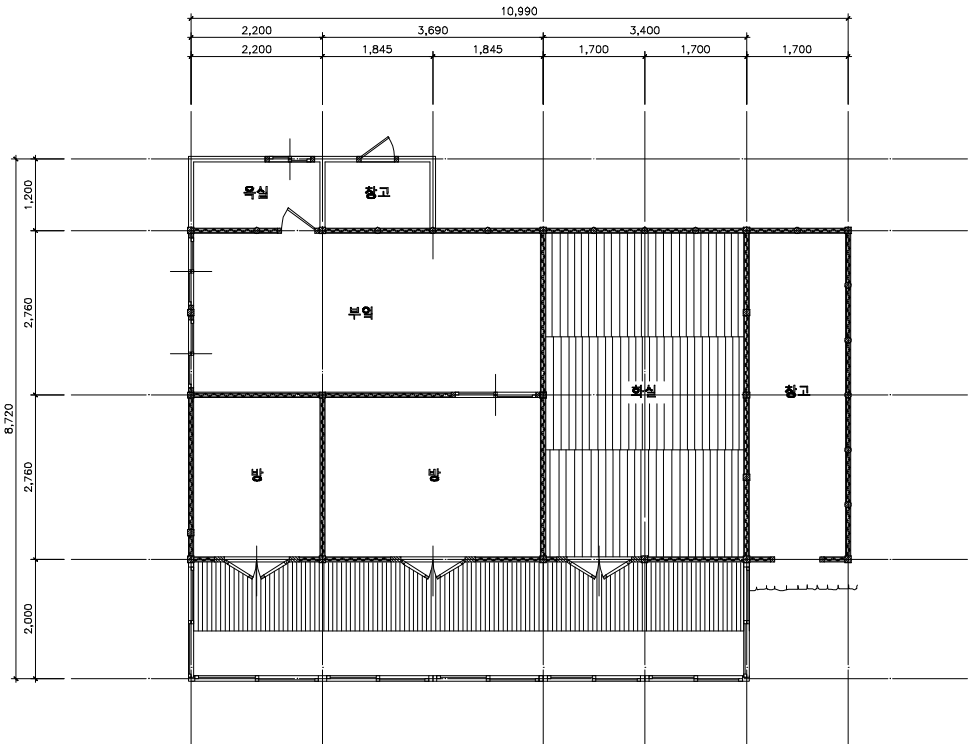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나) 화실

김환기가옥 화실은 문화재로 지정된 안채의 동쪽 읍동리 957번지에 위치한다. 현재 평면의 형태는 방 2곳과 뒤쪽으로 입식부엌이 있고 그 옆에는 마루로 구성된 화실과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창고가 있는 정면 5칸, 측면 2칸의 한옥이다. 특이한 점으로 기둥은 같은 지역의 민가에 비해 기둥이 높아 세장하고, 기단부의 주초가 노출되어 있지 않아 굴립주의 형태를 띤다.

칸을 구성하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샛기둥이 존재하는데 하인방부터 도리까지 한번에 연결되어 1칸을 3등분하고 있다. 근대 이후 화실은 살림집으로 사용되면서 개량되었는데, 입식부엌, 정면의 마루 등은 과거의 모습을 찾기 어렵다. 마루로 구성된 2칸은 기둥 사이의 간격이 1,700㎜로 매우 좁은데 보 방향으로는 5,520㎜로 비교적 큰 폭을 갖는다. 마루로 구성된 공간에서 김환기 화백이 소년 및 청년시절에 그림을 그리는 장소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김환기가옥의 화실은 현재 정규용씨가 소유하여 살림집으로 전용되고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31. 화실 전경

그림 32. 화실 옆 부속창고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33. 화실의 덧댄 함석 처마

그림 34. 원형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배면 벽체

벽체의 경우 배면 회벽 마감이 탈락된 곳이 있으나 구조적인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지붕부는 기존의 지붕재는 거의 탈락되어 연목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임시방편으로 상부에 함석처마를 덧씌워 비바람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함석처마로 인해 더 이상 부식, 탈락 등이 진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종합정비계획에 반영하여 매입 후 보수공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면에는 알루미늄 샷시로 마루가 폐쇄되어 있으므로 원래의 모습을 고찰하여 원형으로 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부재에는 에멀젼 페인트 마감이 되어 있어 원형으로 보수 복원할 때에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외부로 노출된 전기 설비의 경우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시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화실 동쪽에 위치하는 창고는 화실 신축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5. 화실 창고 내부

그림 36. 정면 마루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37. 배면 벽체 및 처마

그림 38. 파손된 지붕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39. 파손된 지붕부

그림 40. 내부 가구 구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3 김환기가옥의 고찰

4.3.1 문헌고찰

현재 김환기가옥의 최초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다만, 김암기 소장 그림에서 김환기화백이 고향을 떠난 후 기억을 떠올리며 그렸던 생가의 모습이 확인된다. 소년 및 청년시절 김환기화백이 주로 기거했던 방으로, 방의 내부에 벽장(반침)이 있을 뿐 퇴칸은 없다. 그러나 김환기화백이 그린 위의 그림에서는 기거했던 방의 앞 중앙부에 마루가 있고 전후퇴칸을 그려놓았다. 이는 고향을 떠난 후 기억을 떠올리며 위의 그림을 그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1. 김암기 소장 김환기화백 수채화

그림 42. 김환기가옥의 현재 모습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3.2 지적도 고찰

김환기가옥의 건축 당시 모습을 살피기 위해 폐쇄지적도를 고찰하였다. 국가기록원 소장되어 있고 1917년에 제작된 전라남도 무안군 기좌면 읍동리 일대의 지적도 29매를 분석하여 15번과 22번 도판에서 1917년 당시 김환기가옥 일대의 지적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17년 조선총독부 제작 폐쇄지적도 상에서는 김환기가옥의 안채가 위치하고 있는 읍동리 955번지와 화실이 위치하고 있는 957번지가 확인되는데, 필지의 소유자도 문자로 작성되어 있으나 해상도가 낮아 명확한 파악은 어렵다. 특히 화실이 위치하고 있는 957번지의 경우 지적도 상에 표기된 소유주를 확인할 경우 당시 화실로 사용되었던 명확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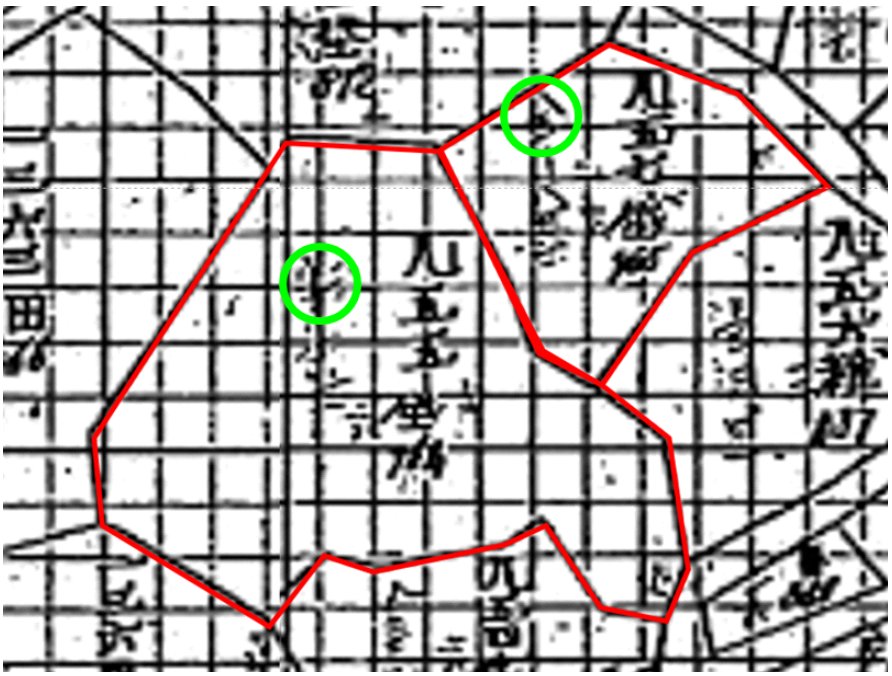


그림 43. 1917년 국가기록원 소장 지적도의 김환기가옥 추정 필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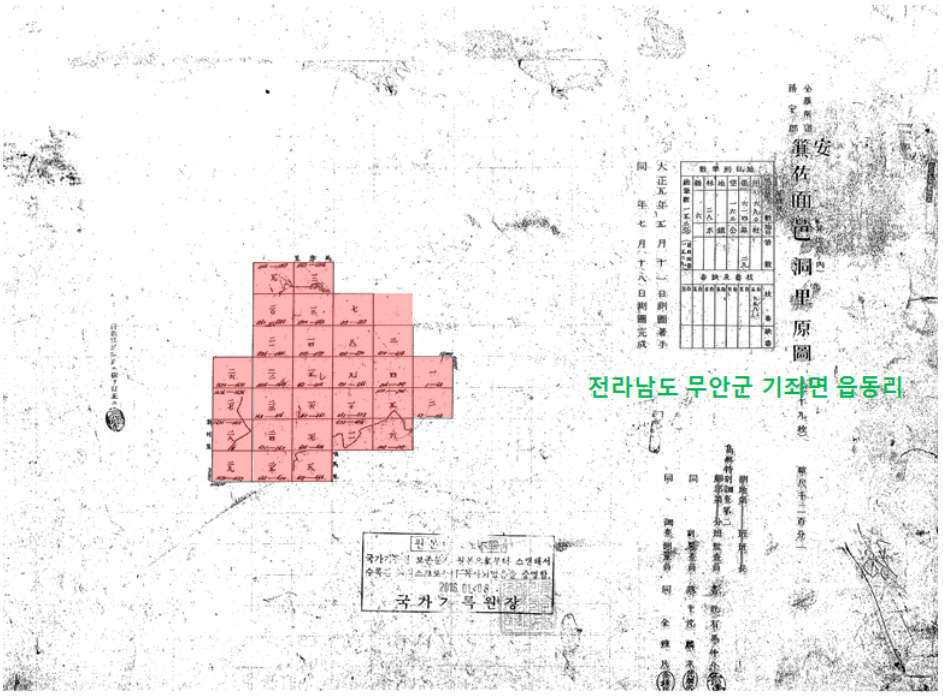


그림 44. 1917년 지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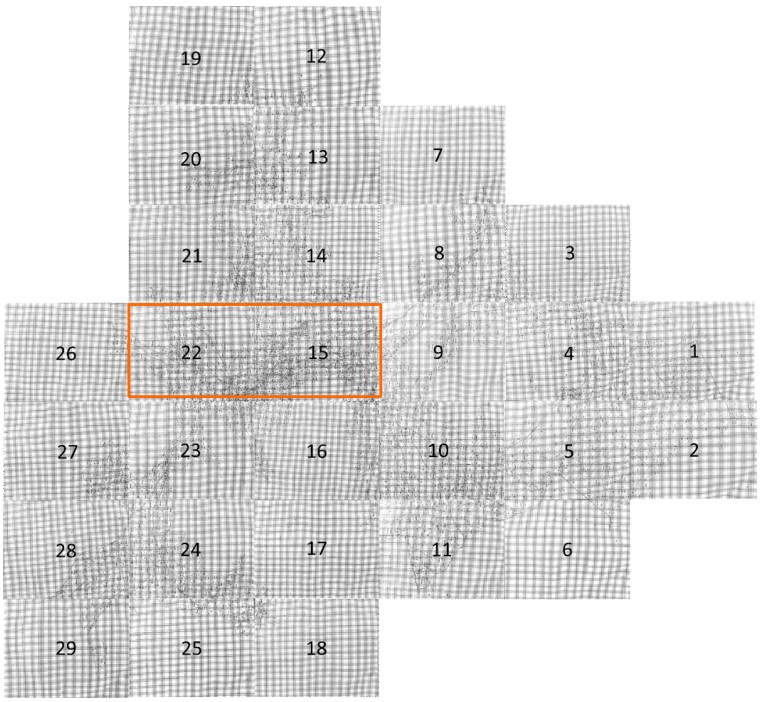


그림 45. 1917년 국가기록원 소장 지적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3.3 위성사진 고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해방이후 항공사진을 고찰한 결과 1954년부터 2008년까지 김환기가옥의 배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1954년 항공사진에서는 김환기가옥 안채를 비롯하여 화실이 확인되고 안채와 화실 사이에 별도의 건축물이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안채와 화실 사이의 건축물은 마을 주민의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랑채였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규모를 명확히 알 수 없다.

그림 46. 1954년 해방이후 항공사진 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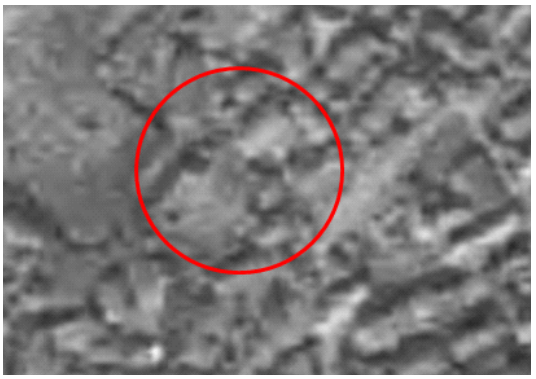


그림 47. 1972년 4개지역(목포) 7코스 20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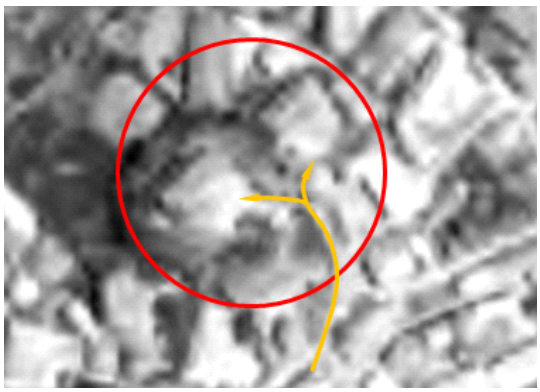


그림 48. 1980년 서남해지구 7코스 23영상

그림 49. 1985년 남해지구 26코스 7영상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50. 전라남북도서B 항공사진 1986 38코스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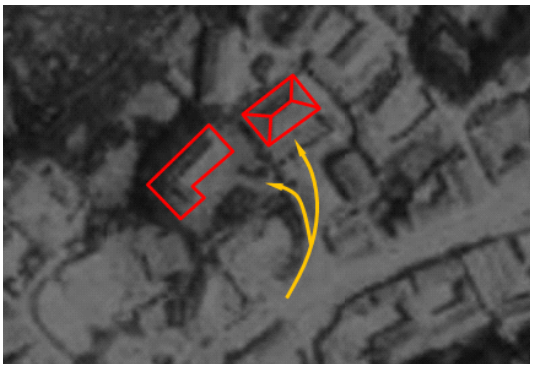


그림 51. 1994년 목포지구 18코스 13영상

그림 52. 1997년 눌옥지구 23코스

그림 53. 2003년 호남1지구 25코스 14영상

사랑채는 1985년경까지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화실은 지붕부에 변화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함석지붕이 덧씌워졌거나 덧댄 지붕을 설치하여 채양을 원래보다 키웠음을 알 수 있다. 1986년 위성사진에서는 1985년까지 존재했던 사랑채가 철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97년 위성사진에서는 현재 안채의 출입문으로 쓰이는 일각문이 건축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기존 사랑채가 위치했던 곳에 현재는 바깥으로 옮겨간 화장실이 자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4 김환기가옥 복원을 위한 분석

4.4.1 김환기가옥의 건축시기 분석

안채, 사랑채, 화실로 확인되는 김환기가옥의 건축시기를 추정하기 위해 '김환기 가옥 내 상량문','폐쇄지적도 상의 토지 소유자', 안좌보통공립학교 재학 및 중동중학교 중퇴 후 낙향했던 시기인'소년 및 청년시절 생활', 소년 및 청년기였던 1927년~1931년 사이 '김환기화백의 연보'등을 고찰하였다.

김환기가옥 내에 상량문이 있으나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음

폐쇄지적도 상의 토지 소유자 파악 (1917)

소년 및 청년 시절 생활 (안좌보통공립학교 재학, 중동중학교 중퇴 후 낙향)

김환기화백의 연보 (1927~1931, 화실의 건축시기)

그림 54. 김환기가옥의 건축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

위의 자료들을 통해 김환기가옥은 1925년 이전에 건축되었고,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안채를 비롯하여 동쪽으로 배치되었던 사랑채와 화실도 비슷한 시기에 건축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희미한 해상도로 인해 화실로 사용되었던 957번지의 소유주가 명확하지 않지만, 김○○로 확인된 점으로 미루어 김환기화백의 부친 또는 집안 소유의 토지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김환기가옥의 안채 및 사랑채 건축 시기와 화실 건축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1913년부터 1921년 사이에 김환기가옥의 안채 및 사랑채가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고, 화실은 김환기화백이 중동중학교 입학 후 중퇴하고 낙향했던 시기와 일본 니시키시로중학교에 입학했던 시기 즈음에 건축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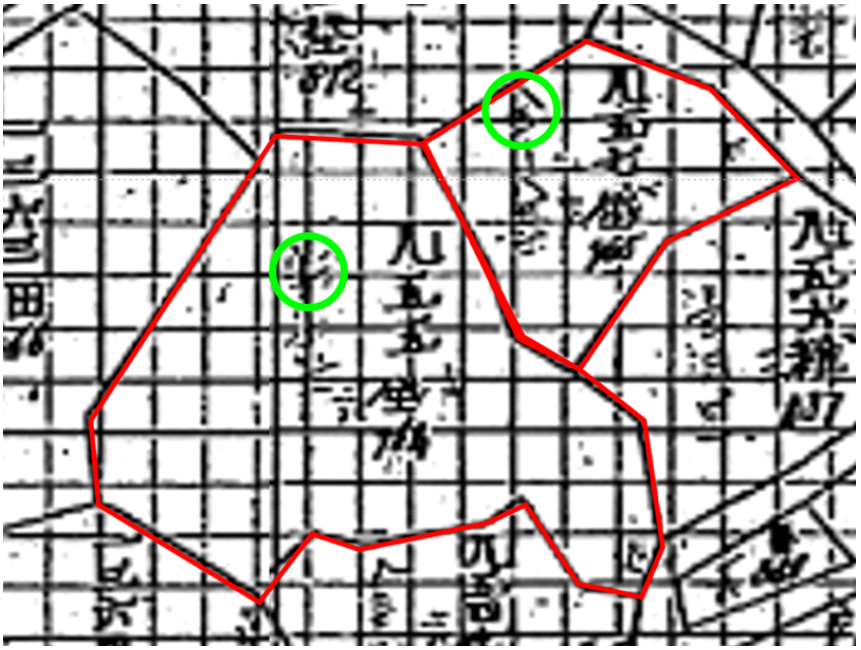


그림 55. 1917년 폐쇄지적도 상의 소유자 성씨

그림 56. 김환기가옥의 상량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4.2 김환기가옥의 영역 및 배치 추정

김환기가옥의 영역 및 배치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는 '국토지리정보원 소장 항공사진', '화실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축물에서 현재 거주 중인 정규용씨 증언', '소년 및 청년시절의 기거 및 활동 내용'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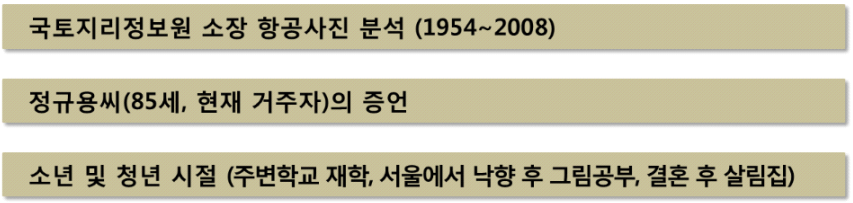


그림 57. 김환기가옥의 영역 및 배치 추정 자료

정규용씨(85세, 현재 거주자)가 40여년 전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하여 현재까지 생활했다는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김환기화백이 화실(현재 정규용씨 댁)에서 작품 활동을 할 때 동네 사람들이 가서 구경했다는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다. 건물 내부의 대청(마루가 깔린 2칸)에서 김환기화백이 작품 활동을 했다는 증언도 확보할 수 있었다. 김환기가옥은 한때 안좌초등학교 관사로 사용되어 선생님의 심부름으로 가옥 내부에 출입하였다는 읍동리 주민의 증언도 확보할 수 있었다.

김환기가옥과 화실은 담장으로 구획되어 있었고 그 사이에 사랑채가 김환기가옥과 직각방향으로 배치되어 존재했다는 읍동리 주민 및 정규용씨의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다. 김환기가옥은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안채가 있는 읍동리 955번지에 사랑채도 추가로 존재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 957번지에는 김환기화백이 소년 및 청년시절 사용했던 화실이 있었고 현재는 정규용씨 소유의 주택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김환기 가옥의 영역과 현재의 지번

	행정구역	가로명	상세주소	구주소	비고
1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김환기길	38-1	읍동리 955	안채,사랑채,대문채
2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김환기길	38-3	읍동리 957	화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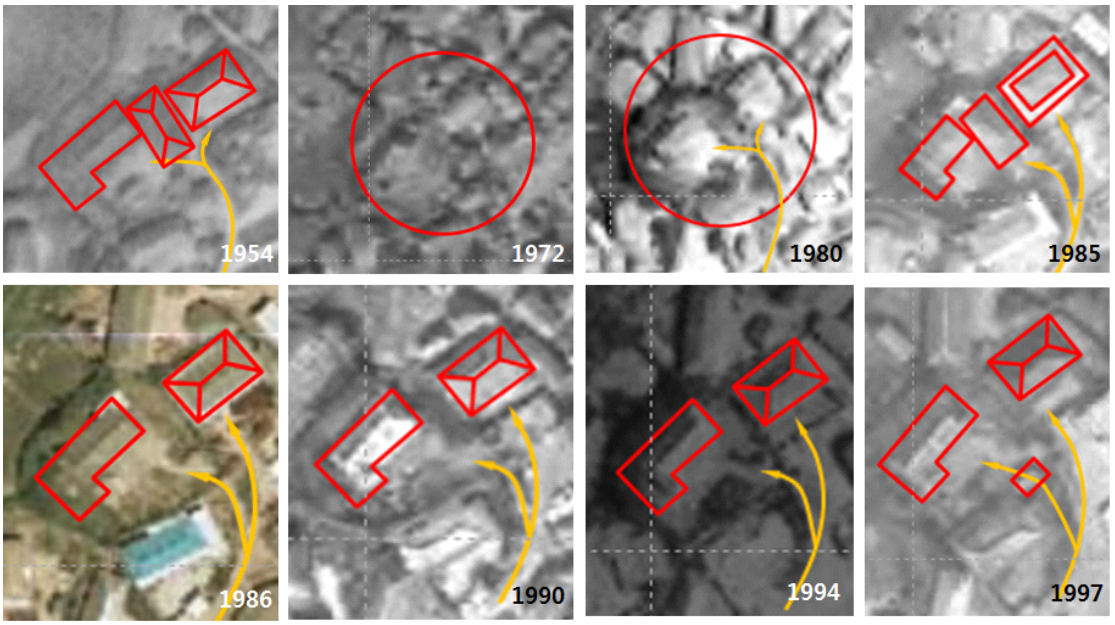


그림 58. 항공사진을 통해 확인한 김환기가옥의 영역과 시기별 배치

4.4.3 김환기가옥을 구성했던 건축물 추정

위에서 언급했던 자료 및 마을 주민의 증언을 통해 김환기가옥의 영역 및 배치를 시기별로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안채 (현재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신안 김환기가옥) 및 사랑채

1920년 전후에 건축되었을 것으로 추정

화실 (현재 정규용씨가 거주하고 있는 안채 동북쪽의 별채)

1927년~1931년 사이에 건축되었을 것으로 추정

대문채 (김환기가옥 출입문)

1990년대 후반에 개축되었을 것으로 추정

화장실 (현재 노인당 철거 자리에 위치)

2003년에 김환기가옥 마당에 건축되었다가 2015년 옛 노인당자리로 이축

그림 59. 김환기가옥을 구성했던 건축물 추정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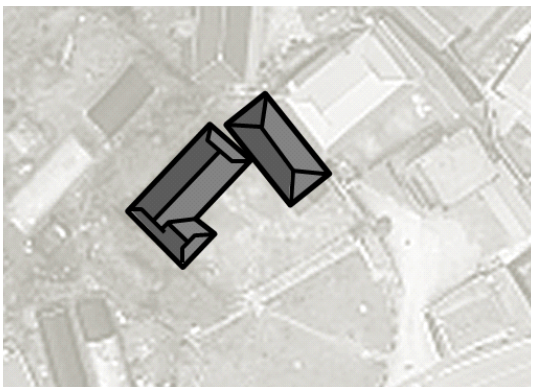


그림 60. 최초
안채-사랑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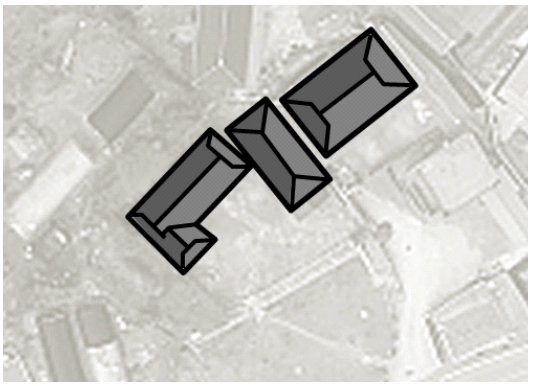


그림 61. 1927년~1931년
안채-사랑채-화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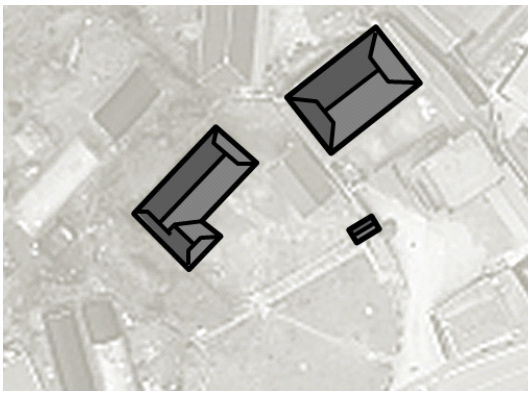


그림 62. 1997년
안채-화실(정규용소유)-일각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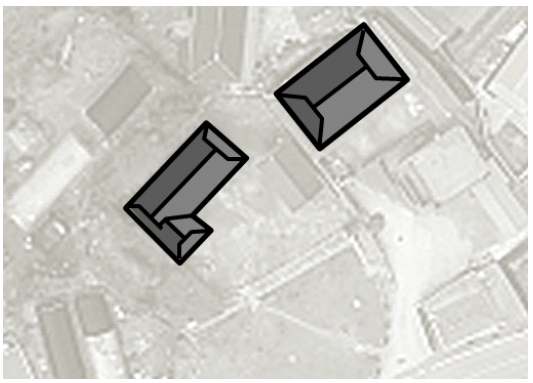


그림 63. 1980년대 중반
안채-화실(정규용소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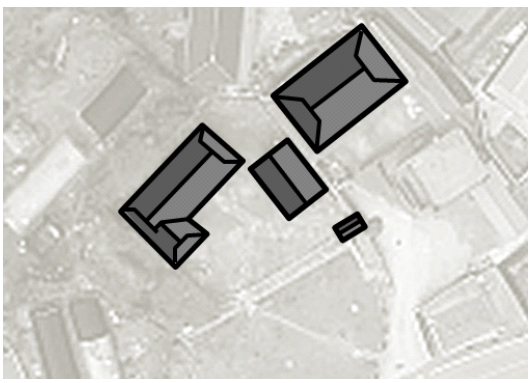


그림 64. 2003년
안채-화실(정규용소유)-일각문-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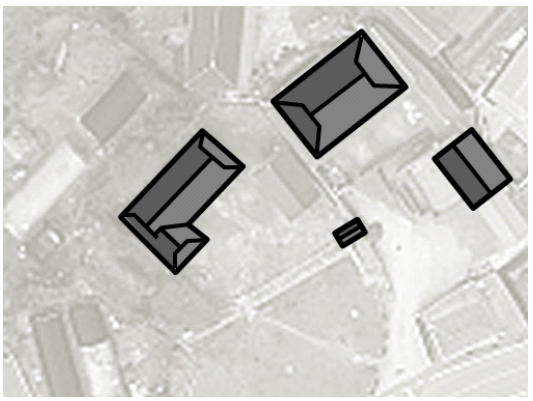


그림 65. 2015년
안채-화실(정규용소유)-일각문-화장실(이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5. 결론

수화 김환기화백은 한국 추상미술의 제1세대로서 세련되고 승화된 조형언어로 한국적 서정주의를 바탕으로 한 고유의 예술 세계를 정립하여 한국을 비롯하여 현대 미술의 중심지인 파리와 뉴욕까지 그 이름을 알렸다.

한국의 대표적인 서양화가로 우리나라 전통미를 현대화시키는데 주력한 수화 김환기 화백은 신안군 안좌면에서 태어나 유년기 및 청년기를 보냈던 의미 있는 장소로 알려져 있다.

김환기화백의 유년기와 청년기 작품활동이 이루어졌던 공간이라는 역사적, 예술적 가치와 함께 20세기 초반 전통가옥이 근대로 들어서면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실용적으로 변용되어 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귀중한 역사문화적 자료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안 김환기가옥의 건축특징과 변화과정을 규명하기 위해 김환기화백과 관련된 문헌을 정리하여, 건축연혁을 파악하고, 연대별 구성 건물에 대한 정확한 위치고증을 통해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현재 김환기가옥의 최초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남아 있지 않지만 김암기 소장 그림에서 김환기화백이 고향을 떠난 후 기억을 떠올리며 그렸던 생가의 모습이 확인되어 현재의 가옥이 원형임을 알 수 있었다.

김환기가옥의 건축 당시 모습을 살피기 위해 폐쇄지적도를 고찰하였다.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고 1917년에 제작된 전라남도 무안군 기좌면 읍동리 일대의 지적도 29매를 분석하여 15번과 22번 도판에서 1917년 당시 김환기가옥 일대의 지적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해방이후 항공사진을 고찰한 결과 1954년부터 2008년까지 김환기가옥의 배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1954년 항공사진에서는 김환기가옥 안채를 비롯하여 화실이 확인되고 안채와 화실 사이에 별도의 건축물이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환기가옥은 1925년 이전에 건축되었고,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안채를 비롯하여 동쪽으로 배치되었던 사랑채와 화실도 비슷한 시기에 건축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환기가옥과 화실은 담장으로 구획되어 있었고 그 사이에 사랑채가 김환기가옥과 직각방향으로 배치되어 존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고문헌

환기미술관 연보

김선배, 남해 도서지역 민가의 주거공간에 관한 연구 -완도, 고흥, 여천지역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조상현, 전남 여천지역 민가의 특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7

김훤, 전남지역 양익형 전통가옥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박선주, 서해도서민가 평면형식의 지역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김지민, 한국 도서지방의 전통민가, 도서문화 제20집, 2002

김후진, 전남지방 민가의 지역별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김지민, 서남해 도서지역 민가의 근대성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7권 3호, 2015

김지민, 신안 도서지역 전통민가, 도서문화 제7집, 1989

김지민, 한국 도서지방의 전통민가, 도서문화 제20집, 2002

오광수, 김환기 영원한 망향의 화가, 열화당, 1997

남성숙, 호남인물100, 송원백화점

이미화, 김환기 작품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2017

미술대사전(용어편), 1998, 한국사전연구사

환기재단 환기미술관, 김환기탄생 100주년 Ⅰ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환기재단, 2013

Collection @ chosun